

【논 문】

劉興治와 朝鮮과의 관계에 대하여

스즈키 카이*

차례

1. 머리말
2. 劉興治와 後金の 관계
3. 劉興治와 朝鮮의 관계
4. 劉興治를 둘러싼 朝鮮과 後金の 관계
5. 맺음말

국문초록

明末清初, 평안도 철산반도 남쪽에 위치하는 椴島를 점거하여 반후금활동을 했던 毛文龍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문룡이 사망한 1629년 이후의 가도세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남아 있는 사료가 비교적 풍부한 劉興治집권기(1630년 4월~1631년 3월)의 가도세력 동향을 검토하였다.

유흥치집권기 가도세력의 동향은 유흥치의 변, 유흥치와 후금의 동맹, 유흥치에 의한 후금과의 동맹 파기, 張燾·沈世魁의 변 등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유흥치는 원래 후금 Hong taiji로부터 가도에서 철수해서 귀순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었다. 그는 모문룡의 사망 후에 가도 책임자인 陳繼盛을 1630년 3월에 살해하고 독립세력이 된 다음에 후금과 동맹하는 노선을 선택하였다. 이것이 유흥치의 변이다. 그는 7월에 후금과의 동맹에 성공하는 한편, 명나라 조정에도 공순한 태도로 접근했고, 게다가 조선조정에도 사자를 보내 식량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조정은 후금과 깊은 관계를 맺는 유흥치를 믿지 않아 식량원조에 대해서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유흥치는

* 日本學術振興會 特別研究員

명조정에서도 충분한 원조를 받지 못했고, 후금이 기대했던 명 측 물자 공급지로서의 역할도 다하지 못하였다.

그는 1631년 2월, 명조정에서 원조를 받으려고 후금에 동맹 파기를 통고했으나 이런 조치에 반발한 그 휘하의 여진인들이 봉기하였다. 그들은 3월에 유흥치를 살해하고 후금으로 귀순하였다. 여진인의 봉기를 진압하려 온 명의 장두, 심세괴 등이 유흥치를 후금에 귀순시키려고 획책한 주모자로 명조정에 보고되었고 조선조정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장두·심세괴의 변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주제어 : 명칭교체, 유흥치, 후금, 가도, 조청관계

1. 머리말

明末淸初, 平安道 鐵山半島 남쪽 해상에 위치하는 椴島[명 측 이름은 皮島]를 점거하고 주변의 섬을 규합해 東江鎮을 설치하면서 反後金 활동을 전개한 명의 무장 毛文龍에 대한 내용은 타가와 코조 씨의 연구¹⁾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이후 이와이 시게키 씨는 毛文龍을 遼東지방에서 대두한 李成梁이나 그 지원을 받은 Nurhaci와 비슷하게,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로 평가하였다.²⁾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키시모토 미오 씨는 李成梁, Nurhaci 뿐만 아니라 福建 연안을 중심으로 활동한 해적 鄭芝龍이나 鄭成功 등을 포함하여 명나라 변경에서 성장해 明清交替를 일으킨 원동력이 된 상업·군사세력의 하나로서 毛文龍을 들기도 하였다.³⁾ 이런 동향을 바탕으로 毛文

1) 田川孝三, 1932, 『毛文龍と朝鮮との關係について』 彙文堂書店.

2) 岩井茂樹, 1996, 「十六・十七世紀の中國邊境社會」, 小野和子編 『明末淸初の社會と文化』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643~644쪽.

3) 岸本美緒, 1995, 「淸朝とユーラシア」, 歴史學研究會編 『講座世界史2 近代世界への道』 東京大學出版會, 19~20쪽. 키시모토 씨는 그 이외로 “林府”라고도 불린 福建泉州의 鄉紳 林希元이나 毛文龍의 부하이었던 孔有德, 尙可喜, 耿仲明 등도 이런 세력에 포함하고 있다(岸本美緒, 1998, 「東アジア・東南アジア傳統社會の形成」 『岩波講座世界史13 東アジア・東南アジア傳統社會の形成』 岩波書店, 25~27쪽).

龍을 椴島에 있어서 “宦官魏忠賢과 結託하여 독립왕국을 지었다”라든지,⁴⁾ “독립정권”, “군벌정권”의 수립을 기도하거나, 혹은 “해상왕국의 상황을 현출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⁵⁾

그러나 毛文龍은 인조7년(1629) 6월에 피살되었고 그 이후 椴島에서는 여러 세력이 잇달아 실권을 잡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은 인조15년 10월, 東江鎮 철수 때까지 이어졌다. 毛文龍을 비롯하여 椴島를 점거한 세력의 明末 清初라는 시대 속에서 지닌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毛文龍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毛文龍 사망 이후의 상황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이 씨는 인조15년의 기록이라고 추정되는 사료를 통해서 毛文龍이 가지고 있었던 무역품을 살펴봤지만⁶⁾ 毛文龍 사망 후 8년 동안의 椴島의 동향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毛文龍을 포함하여 椴島를 점거한 세력을 “椴島勢力”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 세력 중 毛文龍이 사망 후 東江鎮을 감독하였던 陳繼盛을 살해해서 실권을 잡은 劉興治 및 그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후금, 조선 등 주변세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劉興治세력을 포함한 椴島세력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밝혀져야 毛文龍세력을 “독립정권”, “군벌정권”, “해상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劉興治 椴島집권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黃一農 씨가 새로운 사료를 사용하면서 叛明의 사람으로 알려진 劉興治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명 측으로 귀순하려다가 피살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⁷⁾ 다만 黃

4) 細谷良夫, 2007, 「明朝の武將尙可喜」 『東北大學東洋史論集』 11, 284쪽.

5) 松浦章, 2013, 『近世中國朝鮮交涉史の研究』 思文閣出版, 22, 245, 296쪽.

6) 岩井茂樹, 1996, 앞의 논문, 注[59]. 이 사료는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1990, 『清代檔案史料叢編』 14, 中華書局에 수록된 『盛京滿文清軍戰報』 「紙寫檔案」 중의 「克皮島俘獲數目」라는 것이다. 함께 수록된 몇 가지 사료 중에 “辛總兵官”라는 이름이 보이듯이 그 당시 椴島의 실권을 잡고 있었던 沈世魁를 후금군이 공격하였을 때의 사료이다. 그렇다면 그 사료는 기본적으로 沈世魁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무역품을 알 수 있을 뿐이며 毛文龍세력의 실태를 알기 위한 사료로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7) 黃 씨는 『太宗實錄』 [乾隆三修本] 天聰5年3月甲午[20日]條, 中國第一歷史檔案館, 2001, 「天聰

씨는 주로 명 측 입장을 검토하였고 劉興治와 조선의 관계, 그리고 劉興治를 둘러싼 조선과 후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 또 한국에서는 “劉興治가 후금으로 귀순하려다가 계획이 누설되어, 부하 張燾와 沈世魁 등에게 피살당하였다”고 서술하는 등⁸⁾ 아직도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경위를 보다 자세히 검토할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2장에서 劉興治와 후금의 관계, 제3장에서 劉興治와 조선의 관계, 제4장에서 劉興治를 둘러싼 조선과 후금의 관계에 대하여 사자왕래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사항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에 劉興治세력이 椴島세력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明末清初라는 시대 속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2. 劉興治와 後金の 관계

(1) 劉興治 椴島에 들어간다

劉興治와 後金の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기 전에 먼저 그가 椴島에 들어간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劉興治의 형 劉興祚는 開原 출신인데 과거에

五年八旗值月檔(二)』『歷史檔案』2001-2, 8쪽, 魏廷喆『瀋陽往還日記』[奎15682]辛未崇禎4年4月20日條등을 근거로 삼았는데[黃一農, 2002, 「劉興治兄弟與明季東江海上防線的崩潰」, 『漢學研究』20-1, 154쪽], 이 글에서는 보다 자세히 여러 사료의 관련성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각각 사료에 대해서는 2-7, 3-5, 4-4에서 검토한다. 黃 씨는 劉興治세력 내부대립에 대해서 소중한 지적을 하였는데[150쪽]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劉興治에 관한 연구로서는 孟森, 1986, 「關於劉愛塔事蹟之研究」, 同『明清史論著集刊』續編, 中華書局; 李光濤, 1948a, 「記崇禎四年南海島大捷」, 同, 1986, 『明清檔案論文集』聯經出版事業公司; 姜守勳, 1987, 「劉興治的歸明與叛明」, 『社會科學輯刊』1987-3; 陳昱良, 2011, 「明人劉興治與朝鮮關係初探」, 『滿學論叢』1 등이 있다.

8) 한명기, 2009, 「정묘화약의 균열과 병자호란의 발생과정」, 同,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127쪽. 한 씨는 “유홍치는 가도를 통제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후금으로 귀순을 시도하다가 심세괴 등의 반발을 사서 죽은 것이다”라고 적기도 한다(한명기, 2013, 『역사평설 병자호란』 1, 푸른역사, 276쪽).

합격하지 않고 諸生の 衣冠을 입는 바람에 開原道官이 이를 꾸짖으려고 하자 선조 38년(1605), 부모처자를 버리고 Nurhaci 밑으로 귀순하였다. 劉興治 등이 그 때 함께 귀순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劉興祚가 후금에서 Aita 라고 불리면서 副將까지 올라 중용되기 때문에 후금이 세력을 확대해감에 따라 劉興祚에게 의지하여 어머니 등과 함께 귀순하였다고 보인다. 劉興治도 인조 5년(1627)에 후금의 사자로서 錦州로 보내게 된 것이 알려져 있듯이 劉興祚와 마찬가지로 명 측과의 교섭을 담당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인조6년 9월, 劉興祚는 椴島의 毛文龍 밑으로 도망친 다음에 명의 參將이 되었고 寧遠巡撫 袁崇煥의 부하로서 함께 행동하게 되었다. 劉興治 등도 후금에 있으면서 毛文龍과 내통하고 있다⁹⁾ 인조 7년 6월에 毛文龍이 袁崇煥에게 誅殺되면서 같은 해 9월에 椴島에 들었다. 袁崇煥은 毛文龍을 죽인 후 그 兵 28,000명을 4協으로 나눠 각각 副總兵 毛承祿, 中軍 徐敷奏, 遊擊 劉興祚, 副總兵 陳繼盛에 맡기로 하였고 陳繼盛이 여러 가지 임무를 감독하도록 하였는데,¹⁰⁾ 얼마 후 4協을 東西2協으로 삼았고, 劉興祚가 西協을 맡고, 陳繼盛이 東協을 맡아 椴島에 체류하게 되었다. 劉興祚는 인조7년 겨울에 椴島를 떠나 인조 8년 정월 초3일, 太平寨에서 후금군의 공격을 당해서 사망하였는데 劉興治는 이후 西協의 兵을 대신 맡게 되었다.¹¹⁾ 그 이후 劉興治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양쪽 모두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2) 後金の 歸順 勸誘와 劉興治의 變

椴島에 있는 劉興治와 후금의 관계는 인조 8년(1630) 3월 초8일에 Hong taiji가 劉興邦[劉三Lio san], 劉興基[劉四Lio sy], 劉興治[劉五Lio u] 등에게 瀋陽에

9) 인조6년 10월, 毛文龍이 파견한 毛承祿[毛永祿]이 sarhū[撒兒湖城]을 공격하였는데 그 때 劉四, 劉五, 劉六이 대응하였다(『崇禎長編』 元年冬10月乙未(初8日)條)

10) 『崇禎實錄』 2年6月庚戌[날짜불명]條 : 『國權』 崇禎2年6月戊午[初5日]條.

11) 이상, 田川孝三, 1932, 앞의 책, 137~153쪽; 田中克己, 1958, 『アイタの傳記』 『東洋大學紀要』 12; 周文郁 『邊事小紀』 卷2 「撫變紀事」.

와있었던 何盡忠을 통하여 書簡을 보내서 귀순을 권유할 때부터 시작하였다. Hong taiji는 이 서간에서 동년 정월에 太平寨에서 劉興祚를 살해하고 아우인 劉興賢[劉六Lio liu]을 잡고 데려왔으며 혹시 귀순하면 아직 후금 측에 있는 어머니나 아내를 비롯한 가족의 목숨을 살려 주고 劉興治 등이 데려간 여진인이나 漢人 등도 함께 Hong taiji 밑에서 기르겠다고 하였다.¹²⁾ 이를 받은 劉興治는 사자 4명을 보내서 劉興賢이 있는 것을 확인시켰다.¹³⁾ 그들은 16일에 瀋陽에 도착하였고 18일에 귀순을 권유하는 서간을 가지고 돌아갔다.¹⁴⁾

그 직후인 4월, 劉興治 등은 陳繼盛 등을 살해해서 椴島의 실권을 잡았다. 劉興治 變의 시작이었다. 원래 椴島의 사람들은 劉興祚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서 陳繼盛에 실권이 거의 없었는데 劉興祚가 椴島를 떠나자 陳繼盛이 세력을 얻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劉興治 등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다가 이미 언급했듯이 Hong taiji로부터 귀순을 권유하는 서간이 도착하였다. 陳繼盛은 이것을 계기로 劉興祚가 아직 후금에서 살아있어 劉興治 등에게 배신을 권유하고 있다면서 劉興治 등의 배신을 의심하였다. 한편으로 劉興治 등은 그 당시 명 측에서 椴島의 병력을 징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軍民 사이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劉興祚에 대한 모멸 등을 이유로 삼아 陳繼盛 등을 살해하게 되었다.¹⁵⁾

명정부는 “이 逆奴에게, 또 한 敵國이 생겼다”라는 듯이 크게 놀랐는데

12) 『各項稿簿』天聰4年3月初8日 『滿文原檔』7 「兩字檔」130~134쪽[『滿文老檔』IV太宗1, 336-8쪽]. 『滿文原檔』은 國立故宮博物院影印本[2006年刊行], 『滿文老檔』은 滿文老檔研究會譯注本[東洋文庫, 1955-63年]을 참조하였다. 이 서간에서 劉興治 등이 명에 귀순하기 전에 Daišan 밑에 있었던 것도 알 수 있다.

13) 그 때 劉興治가 보낸 서간의 滿文譯이 『滿文原檔』6 「歲字檔」, 218~224쪽[『滿文老檔』IV太宗1, 168~170쪽]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 劉興治는 후금 측의 내용을 제안하였고 “나에게 큰 결의가 있다”고 해서 추후의 陳繼盛살해를 예고하고 있다. 이 서간을 劉興治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神田信夫, 1966, 「『滿文老檔』に見える毛文龍等の書簡について」, 同, 2005, 『清朝史論考』, 山川出版社, 132쪽을 참조.

14) 이상 『滿文原檔』6 「調字檔」440쪽[『滿文老檔』IV太宗1, 340쪽].

15) 田川孝三, 1932, 앞의 책, 150~151쪽.

劉興治는 아직 완전히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劉興治는 登萊巡撫 孫元化的 지휘 밑에서 兵亂을 진압하러 온 副總兵 周文郁과 6월 초1일에 旅順에서 50리 정도 떨어진 小平島에서 만났고, 초7일에 旅順으로 이동해서 명정부에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 劉興祚와 같이 후금과의 전쟁에 힘을 다할 것을 허락을 받게 되었다. 周文郁은 劉興祚와 함께 山海關 부근에서 후금군과 싸운 경험이 있었고 劉興祚가 죽은 후 劉興治의 부하가 된 守備 周之祥, 千總 烏哈得, 把總 郝成功 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대한 조치를 위해 진력하였다. 劉興治는 都司의 벼슬을 받고 劉興祚가 맡았던 西協도 이어받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劉興治 등의 사촌형인 劉興沛도 遊擊의 벼슬을 받게 돼서 25일에 旅順을 떠나 椴島로 돌아갔고 劉興治도 7월 초2일에 旅順을 떠나¹⁶⁾ 23일에 椴島에 도착하였다.¹⁷⁾ 이런 식으로 劉興治의 變은 劉興治 등이 周文郁의 설득으로 명 측에 다시 귀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명정부에서는 5월 13일에 錦州參將 黃龍을 “征虜前將軍都督僉事鎮守登萊東江”으로 임명해서¹⁸⁾ 椴島의 일을 맡기게 하였는데, 劉興治 등에게 西協의 관리를 맡기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劉興治 세력의 椴島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한 지배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劉興治는 周文郁 등과 교섭하면서도 후금과의 교섭도 계속하고 있었다. 劉興治는 기본적으로 명 측 입장으로 행동하면서 후금 측과도 교섭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3) 後金과 劉興治세력의 同盟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劉興治 등은 何進忠[何盡忠] 등 2명을 보내

16) 이상, 周文郁 『邊事小紀』 卷2 「撫變紀事」.

17) 『承政院日記』 仁祖8年7月29日丙午條.

18) 『國權』 崇禎3年5月壬辰[13日]條. “鎮守登萊東江”은 그가 이 지방의 總兵이 된 것을 가리킨다. 한편으로 『崇禎長編』에서는 같은 해 11月丙子朔條에 黃龍이 總兵이 되며 椴島 방면으로 출발하였다고 적혀있다. 혹은 黃龍이 실제로 椴島에 들어간 시기가 11월 이후일 가능성도 있다.

서 후금 측에 봉기를 보고하였는데, Hong taiji는 4월 28일에 봉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修老翁, 下人 李世武 등을 보내면서 劉興邦, 劉興基, 劉興治 등에게 동족 중 1명을 보내오면 그와 Hong taiji 자신이 맹세를 하겠다고 서간을 통해서 제안하였다.¹⁹⁾ 이에 대하여 劉興治는 何盡孝 등 2명을 보냈고 그들은 5월 17일에 瀋陽에 도착하였다.²⁰⁾ 何盡孝 등이 가져온 劉興治 등의 서간 내용은 후금군의 명 침입으로 정월 초4일에 建昌營參將 馬光遠의 中軍으로 永平府가 함락해 후금으로 귀순하였다가 피살된 白衍慶의 사례를 들어서 자신들이 귀순하더라도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표명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²¹⁾ Hong taiji는 20일에 李世武 등을 통하여 答 杖2道を 보내서 다시 동족을 보내올 것을 요청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였다.²²⁾ 이어서 Hong taiji는 24일에 Dahai, Ušan, Turusi, 石廷柱, Hūnta, Dahabu, Suldei, Keri 등을 椴島에 보내서 사정을 조사하도록 시켰다.²³⁾ 그들이 6월 15일에 瀋陽에 돌아온 것²⁴⁾을 볼 때 그 동안 劉興治 등과 귀순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였을 것이다.

-
- 19) 『各項稿簿』 天聰4年4月28日：『滿文原檔』 7 「兩字檔」, 140~143쪽[『滿文老檔』 IV太宗1, 371~372쪽]. 葷子島 家丁 王稱古를 따르면 4월에 步漢 2명이 椴島에서 密書를 갖고 瀋陽으로 들어갔고, 5월 초4일에 剃頭하고 말2필을 받았고 배에 물화를 만재해서 말로 탄 여진인1명과 돌아왔고 14일에 胡服으로 갈아입고 瀋陽으로 돌아갔다(『承政院日記』 仁祖8年5月初8日丁亥條).
- 20) 『滿文原檔』 7 「呂字檔」, 215쪽[『滿文老檔』 IV太宗1, 386쪽].
- 21) 이때의 후금군의 명침입 사건은 己巳의 役, 己巳虜變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조 7년 5월, Hong taiji는 遵化以北부터 군대를 2路로 분할해서 長城안으로 침입하였고, 北京을 공격한 후, 永平, 遵化, 灤州, 遷安을 점령해서 山海關을 함락시키려고 하였는데 이루지 못했다. Hong taiji는 인조 9년 2월에 瀋陽으로 돌아왔고 점령지를 맡긴 Amin도 명군의 반격을 당하여 5월에 퇴각하였다[이상, 李光濤, 1948b, 「論崇禎二年「己巳虜變」」, 同, 1986, 앞의 책; 松村潤, 1981, 「アミン=ペイレの生涯」, 同, 2008, 『明清史論考』 山川出版社; 渡邊修, 1994, 「己巳の役」(一六二九-三〇)における清の對漢人統治と漢官』 『松村潤先生古稀記念清代史論叢』 汲古書院]. 馬光遠과 함께 후금으로 귀순한 白衍慶은 계속 建昌에 있다가 山海關에서 온 명군의 공격으로 2월 초7일에 피살되었는데[渡邊修, 1994, 앞의 논문, 146쪽], 명 측에서는 후금군이 白衍慶을 죽였다는 유언을 퍼뜨리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 22) 『各項稿簿』 天聰4年5月18日 又一書未用印. 후자의 서간에 대해서는 『滿文原檔』 7 「兩字檔」, 144~151쪽[『滿文老檔』 IV太宗1, 389~392쪽]에 실려 있다.
- 23) 『滿文原檔』 7 「呂字檔」, 222쪽[『滿文老檔』 IV太宗1, 394쪽].
- 24) 『滿文原檔』 7 「呂字檔」, 304쪽[『滿文老檔』 IV太宗1, 424쪽].

그 후 7월 초5일에 劉興沛가 何進忠 등과 더불어 瀋陽에 왔고 7월 11일에 Hong taiji, 諸beile 등이 書房bithe i boo에서 향을 피우면서 맹세하게 되었다. 맹세 문서에는 후금 측은 Hong taiji, Daišan, Manggūltai, Abatai, Degelei, Jirgalang, Ajige, Dorgon, Dodo, Dudu, Yoto, Sahaliyen, Hooge 등, 靉島 측은 劉興邦, 劉興基, 劉興治, 劉興梁, 劉興沛 등이 연명되었고, “그 島中の 사람이, 혹은 島中에서 살고, 혹은 상륙해서 사는데, 나의 쪽(후금-스즈카)에게 들어오지 말도록 하고, 그 쪽이 스스로 한 나라를 만들고, 客禮로 대우시킨다. 또 예전에 도망간 金人·蒙古人을, 결코 추궁해서 되찾지 않는다. 그 말에 어긋나면, 客國으로 대우하지 않고 金人·蒙古人을 추궁해서 되찾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다.²⁵⁾ 이를 보면 이번 의식에서는 후금 측이 劉興治 세력을 “客國antaha gurun”으로 인정해서 맹세하게 되었다고 이해된다. 劉興治 측도 귀순하였다는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劉興沛 등은 15일에 瀋陽을 떠났다.²⁶⁾

그 후 劉興治 측도 맹세문서를 작성해서 사자 1명을 통해 이를 후금 측에 전달하였다. 이 사자는 후금의 사자 遲變龍과 함께 8월 초1일에 瀋陽에 도착하였다.²⁷⁾ 劉興治 측이 작성한 맹세문서에는 “맹세한 후부터, 서로 신뢰하고, 오래 和好를 지킨다”라고 적혀 있는데,²⁸⁾ 이는 후금 측의 맹서문서를 추인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8일, 劉興治 등의 사자는 “이제 우리 兩國의 和好가 성립되었다. 사자왕래를 끊지 말아야 한다”라고 적힌 Hong taiji의 서간을 가진 李棲鳳, 遲變龍과 함께 瀋陽을 떠났다.²⁹⁾

25) 王志強, 2014, 「《金國汗黃臺吉與海島劉興治等告天盟書》考」 『中國國家博物館館刊』 2014-2: 『滿文原檔』 7 「呂字檔」, 306쪽, 8 「成字檔」, 23~25쪽(『滿文老檔』 IV 太宗1, 425~427쪽).

26) 『滿文原檔』 8 「成字檔」, 25~26쪽(『滿文老檔』 IV 太宗1, 427~428쪽).

27) 『滿文原檔』 8 「成字檔」, 27쪽(『滿文老檔』 IV 太宗1, 429쪽).

28) 『各項稿簿』 「島中劉府來書」天聰4年8月分運秀才齋來初1日到.

29) 『各項稿簿』 天聰4年8月初日: 『滿文原檔』 8 「成字檔」, 27~29쪽(『滿文老檔』 IV 太宗1, 429~431쪽).

(4) 劉興治 아내의 送還

李棲鳳, 遲變龍은 8월 23일에 劉興治의 사자 Lii tiyan lung, 長壽와 함께 瀋陽에 돌아왔다.³⁰⁾ Lii tiyan lung 등은 “이번 한 겨울이 되면, 정기를 기르고 예기를 기르며, 거둬둔 군비를 갖추고, 오직 汗의 告建명령을 들어서, 혹은 山海關을 공격하고, 혹은 山東을 침략하고, 우러러 弘福에 의지하여, 함께 大業을 이루라”라는 劉興治 등의 서간을 전달하였다.³¹⁾ Hong taiji는 이 서간을 환영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번 겨울에 서로 兵器를 준비하며, 내년을 기다린 후,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다”라는 서간을 작성해서 보냈고 그와 동시에 劉興治 아내를 椴島에 보내도록 하였다. Lii tiyan lung, 長壽는 李棲鳳, 遲變龍과 함께 9월 초2일에 瀋陽을 떠났다.³²⁾

李棲鳳, 遲變龍은 22일에 瀋陽으로 돌아왔다.³³⁾ 劉興治는 그들을 통해서 그 아내가 Hong taiji의 “格外洪恩”을 잘 알고 있다면서 “臣의 어머니도 汗측에 있다. 혹시 臣의 아내를(되찾으려고 臣이-스즈키)계락을 꾸미면 어떤 사태가 생겼을까. 내 부하들이 내 밑에 머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해서³⁴⁾ 자신의 부하들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를 되찾으려고 하였다고 인식되면 신뢰를 잃어버릴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약간의 불만을 표명하였다. 10월 22일, 劉興治가 보낸 사자 Hiong meng lii 등 3명이 瀋陽에 도착해서 여러 물자를 전달하였는데,³⁵⁾ 아내가 돌아온 것에 대한 사은이라고 생각된다.

30) 『滿文原檔』 8 「成字檔」, 29쪽(『滿文老檔』 IV太宗1, 431쪽).

31) 『各項稿簿』 「島中劉府來書」 天聰4年8月分23日.

32) 이상 『各項稿簿』 天聰4年9月分初1日 : 『滿文原檔』 8 「成字檔」, 29~31쪽(『滿文老檔』 IV太宗1, 431~433쪽).

33) 『滿文原檔』 8 「成字檔」, 32쪽(『滿文老檔』 IV太宗1, 434쪽).

34) 『各項稿簿』 「島中劉府來書」 天聰4年9月分22日.

35) 『各項稿簿』 「島中劉府來書」 天聰4年10月分23日 : 『滿文原檔』 8 「成字檔」, 33쪽(『滿文老檔』 IV太宗1, 434쪽).

(5) 後金の 境界團束 要請과 開市 要請

후금 측은 Hiong meng lii 등의 귀환에 맞춰서 Batun, 李棲鳳이 그 從僕 kutule인 李正茂를 함께 椴島 측에 보내게 되었다. Batun들이 맡은 서간에서 Hong taiji는 “그 쪽의 인삼을 구하러 온 세 명이, 길을 잃어서 나의 쪽에서 잡게 되었다. 조사하였더니 맹세한 후에 온 것이었으니, 그들을 보냈다. 혹시 우리나라에 맹세한 후에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또 조사해서 보내야 한다”라고 해서 도망자나 범월인을 단속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에서 2-3에서 본 도망자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맹세는 맹세 이후의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서간 안에서 Hong taiji는 “지금 兩家가 수호하였으니, 서로 開市를 하면 어떨까. 혹시 공연히 할 수 없으면, 몰래 해도 된다. 絀段·金銀은 없어도 되지만, 오직 弓面·茶葉 등 잡화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얻을 수 있으면 좋고, 아끼지 말고 쉽게 교환하자”라고 해서 開市로 후금 측에 없는 弓面, 茶葉 등을 사는 것을 제안하였다.³⁶⁾ Batun 등은 劉興治의 사자 馬永聚와 함께 12월 초10일에 瀋陽으로 돌아왔는데³⁷⁾ 劉興治는 馬永聚를 통하여 서간을 전달하였다. 그 중에서 劉興治는 후금 측이 잡은 3명의 송환에 대해서 “귀환을 허가해 준 것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다. 위가 義를 흥하게 하면, 아래는 반드시 이에 따른다”라고 해서 감사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도망자나 범월인을 단속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開市에 대해서는, 臣은 따르려고 원하는데, 소문이 드러나고, (후금과-스즈키)회의를 통하는 것을 의심하여, 상인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비록 인삼이 있어도, 이를 어떻게 할까. 조선 사람을 경유해서 무역하는 것이 낫고, 이는 三國 모두에게 편리하다”라고 해서 이전대로 조선경유로 무역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角, 茶”에 대해서는 “弓面(角과 같음-스즈키)은 島中에서 다하였으니, 이미 명정부에 요청하였다. 먼

36) 이상 『各項稿簿』 天聰4年10月分28日: 『滿文原檔』 8 「成字檔」, 33~35쪽(『滿文老檔』 IV 太宗1, 434~437쪽).

37) 『滿文原檔』 8 「成字檔」, 35~36쪽(『滿文老檔』 IV 太宗1, 437~438쪽).

저 수는 적지만, 二百에 茶葉百斤(이하 물품 생략-스즈키)을 더해 삼가 바친다”라고 해서 犀角200對, 茶100斤을 비롯하여 여러 물건을 보냈다.³⁸⁾

그동안 劉興治는 9월에 靑山, 鳳凰城, 通遠에서 후금군과 전투해서 각각 首 4급, 17급, 13급을 획득해 명정부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다.³⁹⁾ 바로 타가와 씨가 말했듯이 “조선, 명과 후금 사이에 있어서 首鼠兩端을 갖고 있었는데”⁴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7월 초에 劉興治의 變이 끝나고 후금 측과 맹세한 이후의 시기는 9월의 후금군과의 전투가 있더라도 명과의 관계보다 후금과의 관계가 더 깊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확실히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6) 劉興治의 後金에 대한 疑惑과 同盟의 破棄

馬永聚[馬永賢]가 후금의 사자 遲變龍, 從僕 韋朝卿과 함께 瀋陽을 떠난 날은 인조 9년(1631) 정월 초4일이었다. 그때 Hong taji가 보낸 서간은 “島中 백성이, 누차 나의 쪽에 와서 인삼을 구한다.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라고 해서 경계의 단속을 다시 요구하였고 “開市에 대해서, 소문이 드러나기 때문에, 조선 사람을 경유해서 무역하는 것이 낫다는 말은, 도리가 있다”라고 해서 劉興治 등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⁴¹⁾

遲變龍, 韋朝卿은 劉興治의 사자 Siyoo定子와 함께 정월 29일에 瀋陽으로 돌아왔다. 그 때 Siyoo定子是 Hong taji가 犀角이나 茶의 반례로 보낸 말 2필

38) 이상 『各項稿簿』 『島中劉府來書』 중 「天聰4年9月分23日」와 「天聰5年正月分29日到」의 사이에 수록되는 날짜없는 서간. 그 중 일부분만 『滿文原檔』 8 「成字檔」, 36~38쪽(『滿文老檔』 IV 太宗1, 438~439쪽)에 번역되어 있음.

39) 周文郁 『邊事小紀』 卷2 「撫變紀事」; 『崇禎實錄』 3年9月辛丑[25日]條. 劉興治는 9월 15일에 100餘騎를 거느리며 龍川의 錢亭院에 와서 결진하였고(『承政院日記』 仁祖8年9月15日辛卯條), 그 다음에 義州로 가서 靑布로 미곡을 억지로 사면서(同, 22日戊戌條), 후금병 300餘騎와 조우하자 이를 뒤쫓아가서 通遠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首 40여급, 馬 10여필을 획득하고 1명을 사로잡았다(同, 27日癸卯條).

40) 田川孝三, 1932, 앞의 책, 153쪽.

41) 이상 『各項稿簿』 天聰5年正月分初4日; 『滿文原檔』 8 「成字檔」, 39~40쪽(『滿文老檔』 V 太宗2, 462~463쪽).

을 변환하였다.⁴²⁾ 그 이유에 대하여 劉興治는 “다만 그 때 천하가 정하지 않아서, 汗이 바로 戰馬를 빌려 주었다”라고 하였는데 같은 서간 안에서 “조선 사람이 말하기를, 汗의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병을 동쪽에 보낸다고 하는데, 아직 진위 불명이다”라고 했듯이⁴³⁾ 후금 측에 椴島를 공격할 계획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2월 초1일에는 劉興治의 사자 Lio定子를 비롯한 5명이 瀋陽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가져와서 거래했듯이⁴⁴⁾ 劉興治 측에게 관계를 완전히 끊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인다. Hong taiji는 2월 초5일, Lio定子の 귀환에 맞춰서 成大業, 韋朝卿, Gesecen 등을 파견하면서 후금이 椴島를 공격할 계획이 없는 것을 설명하며 “네가 혹시 정말로 나를 의심하면, 다시 맹세를 원하고, 나도 또 용서할 것이다”라고 제안하는 서간을 보냈다.⁴⁵⁾

그러나 劉興治는 이런 Hong taiji의 제안을 아래와 같이 거부하게 되었다. 成大業들은 24일에 瀋陽에 돌아와서⁴⁶⁾ 劉興治 등의 서간을 전달하였는데, 거기에서는 “다시 조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직 사실에 따라 말할 뿐이다”라고 한 후 Hong taiji가 “지금 내가 다른 생각이 있다고 말하며, 나에게 말을 다해서 숨기지 않도록 하였는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해서 원래 劉興治 자신이 후금에 배신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또 旅順周將官을 만나봤다. 원래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고, 지금 서쪽 변경에서 다시 기용되었다. 姓魏의 사람이 와서 사라졌다. 遼東은 오랫동안 원병하지 않았는데, 지금 登州에 孫都堂을 더하고, 黃總兵을 더하고, 또 많은 川兵 및 苗兵의 鎗手와 火器를 더할 것이다. (중략) 나를 믿을까 의심할까, 오로지 汗 마음에 있을 뿐이다. 어떻게 다시 맹세할 것인가”라고 해서⁴⁷⁾ 예전에 만난

42) 이상 『滿文原檔』 8 「成字檔」, 40~41쪽(『滿文老檔』 V太宗2, 469~470쪽).

43) 이상 『各項稿簿』 「島中劉府來書」 天聰5年正月分29日到.

44) 이상 『滿文原檔』 8 「成字檔」, 42쪽(『滿文老檔』 V太宗2, 473쪽).

45) 『各項稿簿』 天聰5年2月初5日: 『滿文原檔』 8 「成字檔」, 43~46쪽(『滿文老檔』 V太宗2, 474~477쪽).

46) 『滿文原檔』 8 「成字檔」, 46쪽(『滿文老檔』 V太宗2, 479쪽).

周文郁이 지금 후금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고 登萊巡撫 孫元化, 東江鎮의 總兵 黃龍이 새로 부임하고 火器를 다루는 수많은 四川兵, 苗族의 兵도 원군으로 오게 되니 다시 한 번 Hong taiji와 맹세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劉興治가 새로운 사자를 준비하지 않고 成大業 등에게 서간만을 부탁한 것과 합쳐서 생각하면 이 시점에서 劉興治는 후금과의 맹세를 파기하고 명 측 입장에서 행동할 생각을 드러내게 된 것은 확실하다.

(7) 後金 측에 傳達된 劉興治 死亡情報

劉興治가 명 측을 따르는 입장을 밝힌 후 얼마 안 되는 3월 18일 劉興治는 椴島에서 피살되었다. 그 정보는 후금 측에 다음과 같은 경위로 전달되었다. 먼저 3월 24일, 義州에서 조선과의 開市를 감독하고 있던 Inggüldai가 椴島에서 도망친 여진인 15명과 만나게 되었다. 그중 1명이 말하기를 “우리 여진인을 漢人이 죽이려는 것을 미리 알게 돼서 明의 官人과 兵 반수를 죽였고 劉興治의 형 세 명을 붙잡고 있었는데”, 劉興治가 “포로로서 Han 밑으로 데리고 가서 노복으로서 삼자”고 하였기 때문에 일단 살육을 멈췄다. 그러나 이 劉興治의 말은 거짓이었고 그날 밤 劉興治는 明兵을 모아서 여진인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배를 감시하고 있던 여진인들이 이렇게 도망왔다고 하였다.⁴⁸⁾ Inggüldai가 더 조사한 결과, 椴島의 여진인들이 봉기한지 이틀 만에 2,000여 명을 죽였고, 劉興治는 일단 이를 멈추게 한 후 다른 섬의 明兵을 불러서 밤중에 마을에 화약을 뿌려 불을 붙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劉興治 형 세 명” 즉 劉興邦, 劉興基, 劉興沛는 다 죽여 버렸고 약 100~200명이 조선 측으로 도망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Inggüldai는 “義州의 官人” 즉 義州府尹 申景珍, “교역으로 온 官人” 즉 宣諭使 朴蘭

47) 이상 『各項稿簿』 「島中劉府來書」 天聰5年2月分. 黃 씨는 이 서간을 劉興治가 아직도 명, 후금 사이에서 세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黃一農, 2002, 앞의 논문, 143~144쪽), 필자의 이해와 다르다.

48) 이상, 清朝滿州語檔案史料의總合的研究チ-ム譯註, 2011,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I, 東洋文庫, 103~104쪽.

英 등에게서 허락을 받아서 Fangkala, Namin 등 5명을 “安州의 總兵官” 즉 안주에 있던 平安兵使 柳琳 밑에 보내게 되었다.⁴⁹⁾

4월 초8일, Fangkala, Namin 등이 조사한 결과, 조선으로 도망간 사람은 약 370명이었다. 같은 날 도망 온 여진인이 작성한 서간이 Hong taiji에게 도착하였고 그 여진인 등도 19일에 瀋陽에 도착해서 Hong taiji, 諸beile 등에게 봉기의 경과를 직접 이야기하였다. 여진인들은 3월 16일에 봉기하고 18일에 劉興治, 劉興基 등을 죽이고 도망왔다고 말했으니 劉興治 등이 사망한 날은 3월 18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망한 사람은 500명이었는데 그중 남자 301명, 여자 65명, 아이 9명, 모두 375명이 瀋陽에 도착하였고 Hong taiji는 “도망 온 여진인, 몽고인은 각각 예전 주인 밑에서 살려면 살라라. 예전 주인 밑에서 살지 않으려면 旗gūsa 중 좋아하는 곳에서 살아라”라고 하였다.⁵⁰⁾ 그 말에서는 도망 온 사람에게는 여진인뿐만 아니라 몽고인도 포함되었고 “예전 주인”이 있다고 했듯이 劉興治나 그 형제와 마찬가지로 원래 후금에서 살다가 椴島로 도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劉興治가 다스린 시기의 椴島세력은 후금에서 도망간 여진인, 몽고인, 그리고 4·4에서 검토하겠지만, 漢人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들이 명과 후금, 어느 측과 협력할까 천칭에 달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劉興治나 그 형제는 마지막에 명과 협력하는 것을 결정하였지만 그 아래 있던 사람들은 이를 원하지 않아서 봉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3월 17일에 劉興治와 “소를 죽여서 피를 마시는 것으로 맹세” 한 후 일단 漢人의 학살을 멈췄다는 사실⁵¹⁾에서는 그 때까지의 劉興治와 여진인의 유대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瀋陽에 돌아간 사람들은 특별한 처벌도 없이 후금에서 예전대로 살게 되었다. 반대로 명과 협력해서 후금과 전쟁할 기치가 선명하게 되었기 때문인지 후금에서는 5월 초9일 “Aita

49) 清朝滿洲語檔案史料の總合的研究チ-ム譯註, 2011, 앞의 책, 109~111쪽.

50) 이상, 清朝滿洲語檔案史料の總合的研究チ-ム譯註, 2011, 앞의 책, 114~119쪽.

51) 清朝滿洲語檔案史料の總合的研究チ-ム譯註, 2011, 앞의 책, 118쪽.

의 자제들을, 일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여 모두 죽였다”고 한다. 형제들의 어머니는 이미 늙어서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고 여진인의 아내가 낳은 어린 아들도 살렸다고 한다.⁵²⁾ 이것으로 거의 1년 동안 계속된 劉興治와 후금의 관계는 완전히 종언을 고하였다.

3. 劉興治와 朝鮮의 관계

(1) 劉興治의 變과 朝鮮의 劉興治征討

劉興治의 變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되는 4월 17일, 조선정부에 이에 관한 정보가 들어왔다. 陳繼盛의 接伴使 李碩達이 그 형세를 狀啓로 보고해왔는데, 그 狀啓를 平安監司 李時讓 밑으로 가져온 역관 尹孝永이 말하기를 “島中軍民 모두 말하기를, 興治는 이미 欽差文官을 살해하였고, 그 형세는 원래 반란을 일으키려하지 않더라도, 반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상황이었다. 여기에서 원래 劉興治가 후금 측으로 귀순하려고 陳繼盛 등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한편으로 劉興治는 李碩達 등조차 공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劉興基가 “우리 거사는 식량은 다 조선에 의지한다. 조선 사람을 경솔하게 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劉興治를 진정시켰듯이 劉興治 자신은 조선을 미워하였던 것이다. 尹孝永은 劉興治의 變 당시, 陳繼盛을 살리기를 위한 “島中商賈八十餘人”을 “我商賈”라고 불리며 그들이 劉興治에게 죽을 뻔 했다고 증언한 것을 생각할 때 그가 陳繼盛과 친하게 보인 조선상인 등을 미워하게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李碩達의 狀啓와 함께 劉興治가 인조에게 보낸 揭帖도 전달되었고, 그 중에서 劉興治는

52) 이상, 清朝滿洲語檔案史料の總合的研究チム譯註, 2011, 앞의 책, 129~130쪽.

“各道에 명령해서 상례에 따라 무역하면 내외가 평온해져서 백성이 기뻐진다”라고 해서 예전대로 무역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즉시 摠戎使 李曙, 副元帥 鄭忠信을 시켜 椴島를 정토 할 것을 결정하였다.⁵³⁾ 인조는 이번 기회에 椴島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劉興治는 5월 13일에 周文郁 등을 만나느라고 椴島를 나갔기 때문에 李曙는 安州, 鄭忠信은 順安, 肅川 사이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토벌에 대해서는 조선정부에서도 兵曹判書 李貴를 중심으로 명정부의 처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문이 점점 크게 되었고 2-2에서 말했듯이 명정부가 劉興治 등을 처벌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7월 23일, 철퇴가 분부되었다.⁵⁴⁾

(2) 接伴使 羅德憲의 派遣과 劉興治의 使者 李梅

조선정부는 정토를 시도 하였으나 그 동안 劉興治 측과의 교섭을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니었다. 4월 29일에는, 劉興治의 사자 指揮 陸九州가 서울에 도착해서 禮物를 전달하였고 조선 측에서는 그를 太平館에서 접대하도록 하였다.⁵⁵⁾ 그와 동시에 조선정부는 죄를 범해서 德川에 유배된 羅德憲을 劉興治의 接伴使로 삼았다.⁵⁶⁾ 羅德憲은 잠시 鐵山에 머물러 있다가 5월 17일에 椴島에 들어갔다.⁵⁷⁾ 그 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椴島에 돌아온 劉興基

53) 이상 『承政院日記』 仁祖8年4月17日丙寅條：趙慶男 『續雜錄』 3, 同年夏4月初9日條.

54) 이상, 田川孝三, 1932, 앞의 책, 152~153쪽；陳昱良, 2011, 앞의 논문, 316~321쪽.

55) 『仁祖實錄』 8年4月戊寅[29日]條.

56) 羅德憲은 吉州牧使 때 官穀1,000石을 훔쳐서 銀으로 바꾸어버린 것이 발각되었는데 사죄를 면제되었고 德川에 유배되었다가 劉興治의 接伴使를 지원해서 임용되었다(『仁祖實錄』 8年4月己卯(30日)條：『承政院日記』 同日條).

57) 『仁祖實錄』 8年5月戊戌[19日]條：『承政院日記』 仁祖8年5月21日庚子條. 그런데 劉興治의 變과 동시에 肅川에는 漢人이 票文없이 20~30, 혹은 50~60명의 집단으로 상륙해서 “非如前日行乞之類, 佩弓帶劍, 驅脅村民. (중략)氣色頓異, 搶掠倍前”라는 상황이었고, 安州에는 劉興治의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李梅, 尹光裕가 와서 管餉使 成俊耆가 관리하였던 미곡을 사려고 하였다(『承政院日記』 仁祖8年4月17日丙寅條). 劉興治의 變 이후 椴島세력의 平安道, 黃海道 지역에 대한 약탈이나 식량공출 요구가 계속되게 되었다. 예전과 비하여 劉興治의 통제력이 약해졌던 것이 이런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된다.

가 조선 측으로 사자를 보내거나 平安監司 金時讓 밑으로 揭帖을 보내려고 해서 조선 측이 이를 거절하였다.⁵⁸⁾ 조선정부는 기본적으로 劉興治와만 교섭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7월 27일, 劉興治가 周文郁 등의 설득으로 椴島에 돌아왔다는 정보가 조선정부에 전달되었다.⁵⁹⁾ 接伴使 羅德憲은 25일에 劉興治와 만났고 예물을 바쳤다고 조선정부에 보고하였다.⁶⁰⁾ 그리고 8월 초4일에 劉興治의 사자로서 李梅의 “上京牌文”이 羅德憲에게서 발송되었고⁶¹⁾ 李梅는 千總 董祚, 把總 徐世貴, 劉一俊, 家丁 33명을 거느리며⁶²⁾ 서울에 들어왔다. 李梅는 劉興治를 대리해서 왔으며 “咨文, 封書, 及禮單等物”을 인조에게 직접 바치려고 하였고,⁶³⁾ 그중 “咨文”은 遼東으로 진격하기 위한 군량원조를 요청하는 “劉副總應龍咨文一道”이었고 “封書, 及禮單等物”은 劉興治의 揭帖1道, 書稿2道, 禮單帖2道, 李梅의 禮單帖1道를 가리키는 것이다. “劉副總應龍咨文”은 서울에 도착한지 오래 된 후에 제출한 것이고 규례와 맞지 않은 데가 있어서 조선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李梅는 禮單帖에서 “督理閣部標下都僉司僉書” 즉 孫承宗의 부하를 칭하고 있었지만⁶⁴⁾ 실질적으로 劉興治의 지지를 받은 사자였다고 생각된다.

조선 측은 원래 국왕과 都司를 만나는 규례가 없었으니 인조는 李梅와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李梅가 화를 냈기 때문에 8월 17일, 崇政殿에서 李梅를 接見하게 되었다.⁶⁵⁾ 이때 李梅는 劉興治의 揭帖 등을 전달해서 조선이 劉興治를 정토하려고 한 것을 힐책하면서 椴島에서 조선 측으로 도망간 漢人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도망자에 대해 李梅는 구체적으로 원래 陳繼盛의

58) 『仁祖實錄』 8年6月癸酉[25日], 7月乙酉[初8日]條: 『承政院日記』 仁祖8年7月初2日己卯條.

59) 『仁祖實錄』 8年7月甲辰[27日]條: 『承政院日記』 同日條.

60) 『承政院日記』 仁祖8年8月初1日戊申條.

61) 『承政院日記』 仁祖8年8月初4日辛亥條.

62) 『承政院日記』 仁祖8年8月初8日乙卯條.

63) 『承政院日記』 仁祖8年8月12日己未條.

64) 이상 『承政院日記』 仁祖8年8月17日甲子, 20日丁卯條.

65) 『承政院日記』 仁祖8年8月17日甲子條.

부하로 平壤에서 劉興治의 變을 알자 조선 측에서 살게 된 夏雲蒸와 忠淸道로 도망가 漢人 300명을 거느리고 있던 李成龍의 송환을 요청하였는데, 인조는 夏雲蒸은 이미 송환하였고 李成龍 등 2명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⁶⁶⁾ 劉興治 입장에서는 명 측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후금과의 동맹도 성공하자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해서 강압적인 태도로 여러 원조를 얻으려고 하였던 것이지만 조선 측이 신중한 태도를 지켰기 때문에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3) 去來不調와 平安道の 治安惡化

劉興治는 그 이후도 조선 측에 계속 원조를 요청하였는데 조선정부의 대응은 냉담하였다. 9월 초3일, 劉興治가 보낸 遊擊 李見이 와서 인조에게 서간을 전달하였다. 그중에서 劉興治는 조선 측으로 보낸 “燒炭將領” 및 “析薪之衆” 등이 피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는 鄭忠信이 보내온 서간이 “言辭傲慢”이라면서 “이번에 興治는 성은을 입어 품계를 올려 받고, 군사를 더하러 各島를 통령하여, 桑榆를 맡기게 되었다. 바로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다하여, 朝廷에 보답해야 한다”라고 해서 조선 측에 명정부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인조와 접견한 李見은 “島中의 사람이, 지금 바로 굶주리고 있으니, 식량의 무역을 허락하고, 노약자들을 구제해 달라”고 하였고 인조는 “내가 편의에 따라 무역하게 하라는 뜻을, 해당 관리에게 분부한다”라고 해서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⁶⁷⁾ 그러나 9월 15일, 劉興治가 李光裕를 보내 銀 30,000兩으로 “質糧”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⁶⁸⁾ 領議政 吳允謙은 12일에 “요즘 청천강 이북에서 島中의 사람 중에 差官이

66) 『承政院日記』 仁祖8年8月17日甲子條. 李成龍은 송환되게 되면 확실히 죽는다고 조선정부에 호소하였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기로 하였다(『仁祖實錄』 8年10月庚戌(初5日), 丁卯(22日)條).

67) 이상 『仁祖實錄』 8年9月己卯[初3日]條. 그 때 鄭忠信이 “漢人之流離者” 등을 많이 죽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同, 癸未(初7日)條]. 李見은 接伴官 李時煥과 함께 초6일에 서울을 떠났고(『承政院日記』 仁祖8年9月初6日壬午條), 李時煥은 25일에 돌아왔다(同, 25日辛丑條).

68) 『仁祖實錄』 8年9月辛卯[15日]條.

라 이름하는 자가 이처럼 많고, 또 물화를 가지고 閭閻에서 강매를 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이러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接伴使로 하여금 타이르게 한다”라고 하였고 인조는 “多才文官”을 接伴使로 삼아 그런 민폐를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⁶⁹⁾ 2-5에서 말했듯이 그 동안 劉興治는 龍川에서 通遠까지 진군하는 반후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劉興治는 조선정부에 군량을 비롯한 여러 물자를 요청하였지만 조선정부가 충분한 원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탈과 같은 방법으로 淸川江 이북지역에서 물자를 얻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10월 초7일, 劉興治가 보낸 千總 董祚가 서울에 도착하였고 조선 측은 이를 禮賓寺에서 접대하였다. 董祚는 여러 물건과 함께 “바꾸어 줄 곡식은 오직 원하는 수량만을 준비하고 시기를 봐서 속히 운반해 달라”는 揭帖을 전달하였다.⁷⁰⁾ 그 때 問安官 鄭維城, 重陽問安官 등이 靉島에 들어가 있었는데 劉興治는 鄭維城에게 靉島 안에 식량이 없어서 조선 측에서 샀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 劉興治가 靉島의 폐단을 없애려고 하였지만 조선이 정토하려고 해서 유감스럽다는 것 등을 말하고 있었다. 또 劉興治는 “奇功大捷”의 4글씨가 쓰인 紅旗를 게양하고 있었다고 한다.⁷¹⁾ 그 때 靉島에 식량이 적기 때문에 李見이 宣川에 와서 “恐囑萬端”이었고 管餉使 成俊耆 곳으로 향해서 떠났으니⁷²⁾ 靉島에 식량문제가 더 한층 심각해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식량의 수송이 늦었기 때문에 尹光裕가 載寧縣監, 文化縣監을 결박해서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였다.⁷³⁾ 李見은 10월 17일에 龍岡에 도착하였고 강물이 얼기 전에 數千石의 군량을 靉島로 수송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조선정부는 이를 허가하였다.⁷⁴⁾ 15일에 劉興治의 揭帖과 예물이 서울에

69) 『承政院日記』 仁祖8年9月13日己丑條.

70) 『仁祖實錄』 8年10月壬子[初7日]條：『承政院日記』 仁祖8年10月初6日辛亥, 13日戊午條.

71) 이상 『仁祖實錄』 8年10月壬子[初7日]條.

72) 『承政院日記』 仁祖8年10月初9日甲寅條.

73) 『承政院日記』 仁祖8年10月初10日乙卯條. 군량을 실은 唐船 1隻이 甌山에서 靉島로 향하였는데, 鹽場海口에서 침몰해서 漢人 7명이 익사한 사건도 일어났다(同, 12日丁巳條).

74) 『仁祖實錄』 8年10月壬戌[17日], 11月庚辰[初5日]條.

도착하였는데⁷⁵⁾ 군량수송을 서두르게 할 대신에 예물을 보냈다고 생각된다.

인조는 22일에 새로 부임할 平安監司 閔聖徵에게 “가서 興治와 만나면, 그에게 타이르려고 말하기를, 지나치게 소란을 피우는 자는 비록 上國 사람이라도 도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사태가 부득이하면 弓劍을 이용하여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하면, 아마도 두려워 꺼리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라고 해서 군량을 판매하는 대신에 평안도 연안의 치안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엄격한 자세를 보이려고 하였다.⁷⁶⁾

그러나 11월 초4일, 李豹義가 劉興治의 票文을 가지고 여진인 등과 사냥개를 거느리면서 의주에 왔는데, 의주부윤 李濩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李豹義 등이 약탈하였다.⁷⁷⁾ 초6일도, 李梅가 甌山에서 椴島에 돌아갈 때 刷馬 70餘匹을 약탈하였기 때문에 閔聖徵이 스스로 椴島에 들어가서 劉興治에게 이후 사자가 왕래할 때 刷馬를 결코 대줄 수 없는 것을 전달하게 되었다.⁷⁸⁾ 16일에는 龍川과 義州 사이에 漢兵 150餘騎가 와서 후금사절 Ajuhū 일행은 昌城, 朔州방면으로 돌아가도록 하는⁷⁹⁾ 등 치안은 회복되지 않았다.

12월 초6일에는 中和에 온 劉興治의 家丁 30여 명 중 17명이 中和代將 梁德渭 등에게 피살당하였는데, 劉興治는 正朝問安官에게 票文없이 조선으로 와서 약탈한 사람의 송환을 요구하였고, 부하인 金聲運, 李見 등을 파견해서 범인을 찾게까지 하였다.⁸⁰⁾ 17일에도 崔躍祖의 부하 40명이 黃州에 와서 약탈하였기 때문에 조선 사람에게 화살을 맞아서 죽어버렸다.⁸¹⁾ 결국 그 지역의 조선과 劉興治 세력의 긴장관계는 수습의 길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보인다.

75) 『承政院日記』 仁祖8年10月15日庚申條.

76) 『仁祖實錄』 8年10月丁卯[22日]條.

77) 『仁祖實錄』 8年11月己卯[初4日]條.

78) 『仁祖實錄』 8年11月辛巳[初6日]條.

79) 『承政院日記』 仁祖8年11月16日辛卯條.

80) 『仁祖實錄』 8年12月庚戌[初6日], 9年正月丙戌[12日]條.

81) 『仁祖實錄』 8年12月辛酉[17日]條; 『承政院日記』 同日條.

이런 상황에 대하여 조선정부는 閔聖徵의 요청에 따라 椴島에 조선 측 사정이 누설하지 않도록 서울과 京畿에 있는 漢人을 잡고 명 측에 송환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閔聖徵이 劉應龍의 差備譯官 李賢男이 “南方人”에게서 비밀리에 알아낸 정보로서 말하기를 “劉將(劉興治 - 스키)이 글을 아는 영리한 사람과 솜씨 좋은 장인들을 서울에 들여보내 사대부집이나 여염집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자세히 탐지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후금 사자가 왕래할 때 本道에서 알지도 못하였는데 島中에서 먼저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劉興治가 보낸 사람들이 사족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정보를 누설하고 있었다. 비변사 回啓에서는 “漢人이 우리의 사정을 탐지하여 島中에 알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이 알리고 있다”라고 있었듯이 그 중에 조선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의 배경으로서는 같은 비변사 回啓 중에 “島中の 馬市를 없애지 않으면, 譯官 및 商賈輩가 매매하는 길이 끊어지지 않아 우리나라 사정이 이를 통해 흘러 나갈 것이다. 엄히 신칙하여 금지시킨다”라고 했었듯이⁸²⁾ 椴島와 조선 사이에서 이 “譯官商賈輩”에 의한 “馬市”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족이나 백성들이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4) 禮部咨文 偽造 事件

앞서 언급했듯이 “馬市”같은 경제적 유대가 있어도 劉興治 측의 약탈이 멈추지 않은 이유는 劉興治 세력이 명에서 충분한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1월 29일, 서울에 도착한 守備 錢國海는 조선 측에 劉興治 세력을 위한 軍糧 20,000石, 戰馬 3,000匹의 원조를 요청하는 內閣大學士兼 兵部尙書 孫承宗이 작성한 咨文을 가져왔다고 하였는데, 사실 이 咨文은 劉興治가 위조한 것이었다. 이를 깨달은 조선정부에서는 12월 초3일, 崇政殿에서 錢國海를 인조와 접견시켜서 후대하면서도 軍糧, 戰馬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⁸³⁾ 劉興治 측이 예부의 자문을 위조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孫承宗

82) 이상 『仁祖實錄』 8年12月朔乙巳, 乙卯[11日]條.

등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 측이 이번 원조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椶島의 곤궁이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 그 사건 이후, 劉興治가 피살되기 직전인 3월 초4일에 그의 사자 李豹義가 豊川에 왔다는 정보가 조선정부에 전달되었을 뿐이었다.⁸⁴⁾ 劉興治와 조선의 관계는 거의 끊겼다. 劉興治는 조선과의 관계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조선 측의 대응은 냉담한 것이었다.

(5) 劉興治死亡에 관한 두 가지의 情報과 張燾·沈世翬의 變

劉興治 사망정보는 몇 가지 경로로 조선정부에 들어왔다. 먼저 3월 22일, 平安監司 閔聖徵의 狀啓가 조선정부에 도착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南海候望將 田好先이 예전에 椶島로 들어간 여진인이 처자를 데리고 나와 Inggüldai에게 보낼 “胡書胡箭”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는 島中の 漢人 및 劉將을 다 죽이고, 本土로 들어간다”라고 하였고 田好先이 이를 宣川府使 崔雲水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또 같은 날 宣諭使 朴蘭英의 보고에 따르면 “守備 毛有墜이 劉姓·降虜를 모두 죽이고 宣川 땅으로 나와서 장차 북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였다.⁸⁵⁾ 毛有墜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지만⁸⁶⁾ 후금으로 귀순을 바라는 사람들이 劉興治 등을 살해하고 椶島에서 도망왔다는 점이 후금 측의 기록과 일치한다.

한편으로 그 다음 날인 23일에 接伴使 羅德憲이 보낸 狀啓에 따르면 16일에 여진인 800여 명이 봉기하였고, 17일에 자신들이 체재하였던 館舍를 지키는 漢人에 물었더니 “興治·降虜이 天朝에 모반하였고 장차 후금에 투항하려고 한다”라고 대답하였고 劉興治 등은 다음 날 아침에 피살되었다고

83) 『仁祖實錄』 8年11月甲申[初9日], 甲辰[29日], 12月丁未[初3日]條. 錢國海는 12월 14일에 서울을 떠났다(『仁祖實錄』 8年12月丁巳(13日)條: 『承政院日記』 仁祖8年12月14日戊午條).

84) 『承政院日記』 仁祖9年3月初4日戊寅條. 3월 15일에 李見이 豊川에 와 있었는데(同, 15日己丑條) 그가 劉興治의 사자로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85) 이상 『承政院日記』 仁祖9年3月22日丙申條; 趙慶男 『續雜錄』 3, 同年3月15日條.

86) 黃一農, 2002, 앞의 논문, 144~146쪽.

보고하였다. 羅德憲은 遊擊 張燾 등이 역관을 불러서 “興治가 天朝에 모반하였고, 島民을 죽이고 후금에 투항한 후, 후금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망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잡은 다음에 참수하였다”라고 하면서 여진인 300여 명이 배를 타고 조선 측으로 도망갔다고 말하였다는 것도 보고하였다.

날짜는 2-7에서 살펴본 후금 측의 기록과 일치하였고 붕기한 사람 수, 조선으로 도망해온 사람 수도 큰 차이가 없으니 이 보고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나 의문이 하나 있다. 羅德憲은 “興治가 어지럽게 싸우던 병사들 틈에 죽은 것은 정녕이다. 하지만 혹은 소사하였다든지, 혹은 배에 타려고 하다가, 주선이 잘 되지 않아, 바다 속에서 익사하였다든지, 혹은 降隓이 ‘오늘에 우리가 죽을 것은, 다 너 때문이다’라면서 죽었다고 한다”라고 적었듯이⁸⁷⁾ 그는 실제로 劉興治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지 못했다. 羅德憲은 劉興治가 죽은 후 張燾 등의 말을 들어 張燾, 沈世魁 등이 후금으로 귀순하려고 한 劉興治 등을 살해하였다고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承政院日記』 仁祖9年3月23日丁酉條에 “接伴使의 書目은, 劉興治가 降隓 팔백여명을 거느리고, 장차 후금에 투항하려 할 때에, 張勳(燾-스즈키) · 沈世魁 등이, 앞장 서서 島中の 軍兵을 거느리고, 興治兄弟 및 降隓 등을 참살하였다”라고 하였듯이 羅德憲은 張燾 · 沈世魁 등이 劉興治 등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서 조선정부에 보고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 羅德憲의 狀啓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생각되는 『仁祖實錄』 9年3月乙未[21日]條에는

假島守將 劉興治가 모반하려다가, 張燾 · 沈世魁 등에게 살해되었다. 興治는 후금에 투항하려고 하였다. (중략) 燾 및 世魁 등이 (모반을-스즈키) 미리 알고 서로 비밀히 모의한 뒤, 밤을 틈타 興治營에 돌입하여 함성을 지르면서 불을 지르고 降隓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다. 興治는 중적을 알 수 없었는데, 혹 어지럽게 싸우던 병사들의 틈에 죽었다고 하였다.

87) 이상 『承政院日記』 仁祖9年3月23日丁酉條；趙慶男 『續雜錄』 3, 辛未崇禎4年仁祖9年3月19日條.

라고 적혔듯이 처음에 마치 張燾 등이 후금으로 귀순하려고 한 劉興治 등을 살해한 것처럼 적혀있다. 그러나 실제로 張燾 등은 劉興治의 빙에 돌입해서 여진인 등을 살해하긴 하였는데 劉興治는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으며 혹은 전란이 한창인 때 죽었을 지도 모른다고도 적고 있어서 모순되게 기술되어 있다.

이제까지 모든 연구자가 『仁祖實錄』 9年3月乙未條를 근거로 劉興治가 후금으로 귀순하려고 해서 張燾, 沈世魁 등에게 피살당하였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2-6에서 보았듯이 실제로는 劉興治는 진심으로 명 측에 귀순하려고 하다가 여진인들에게 피살을 당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 본 바와 같이 조선정부에 보고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측에서는 羅德憲이 전달한 張燾의 말에 따라 劉興治가 후금에 귀순하려고 해서 張燾 등에게 피살당하였다고 적게 되었다. 그 이유의 하나는 平安兵使 柳琳이 “宣川府使의 보고에 降胡 등이 반란을 일으켜 劉將을 죽였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듯합니다”라고 말했듯이⁸⁸⁾ 조선 측이 그가 명 측으로 본격적으로 귀순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⁸⁹⁾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회로 椴島의 실권을 잡으려고 한 張燾, 沈世魁 등이 劉興治를 반역자로 삼아 자신들의 공으로 명정부에 보고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⁹⁰⁾

그런 뜻으로 劉興治의 살해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을 張燾·沈世魁의 變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조선 측이 劉興治의 살해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4-5에서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

88) 『承政院日記』 仁祖9年3月23日丁酉條.

89) 조선정부가 劉興治의 사망을 “天佑之幸”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은 黃一農, 2002, 앞의 논문, 155~156쪽을 참조.

90) 명정부에서도 張燾, 沈世魁 등이 후금으로 귀순하려고 한 劉興治를 죽였다고 인식되었던 것은 黃一農, 2002, 앞의 논문, 152~153쪽을 참조.

4. 劉興治를 둘러싼 朝鮮과 後金の 관계

(1) 宣若海 一行의 派遣과 後金の 椴島에 대한 食糧援助 停止要請

Hong taiji는 이미 인조 8년 2월 14일에 陳繼盛, 劉興治를 비롯한 여러 섬에 체류하는 명 측 무관 등에게 귀순을 권유하는 諭帖을 보냈듯이⁹¹⁾ 椴島 세력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陳繼盛은 그 당시 安州로 오고 있었던 후금의 Dungalami 일행⁹²⁾을 죽일 것을 조선 측에 제안하고 있었고 실제로 3월 17일에 劉興治와 더불어 병 500명을 거느리며 義州에 왔기 때문에 府尹 李時英은 Dungalami 일행을 朔州으로 도피시켰다. 노한 劉興治는 李時英 등을 결박해서 난타하였고 府의 창고에 있던 물자나 Dungalami 일행이 놓고 간 물자 등을 약탈하기도 하였다.⁹³⁾ 특히 劉興治가 노한 이유는 李

91) 『各項稿簿』 天聰4年2月14日發各島諭帖.

92) Dungalami 일행은 조선과의 開市를 목적으로 파견된 사절이었다. 일행은 從胡 30여명을 거느리며 2월 말에 조선 측으로 들어왔으며 人蔘 20餘駄 등을 갖고 安州에서 開市를 하려고 하였다(『承政院日記』 仁祖8年2月17日丁卯, 27日丁丑條: 趙慶男 『續雜錄』 3, 同年2月17日條). Dungalami는 가져온 은과 人蔘으로 靑布 80餘駄를 얻으려고 했으며 서울로 올라가려고 “嚇言”하였지만 조선정부는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Dungalami는 平安監司 金時讓, 管餉使 成俊壽에게 은과 人蔘을 부탁하며 5월 상순에 靑布 16,000桶과 교환하는 것을 약속하였다(이상, 宣若海 「水使公藩陽日記」, 崇禎3年庚午2月條). 또 Dungalami는 平壤에서 人蔘 1,700斤의 대가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金時讓이 管餉所에서 비축하였던 미곡을 주게 되었다(『仁祖實錄』 8年3月己丑(初9日)條, 張存武, 1979, 「清入關前與朝鮮的貿易: 1627~1636」 『東方學志』 21, 192~193쪽). Dungalami 일행이 가져온 人蔘 20餘駄와 1,700斤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Dungalami 일행은 順安에 도착하였다가 되돌아가게 되었고 義州에서 板莫洞을 지나가서 朔州에 일렀고 昌城을 경유해서 [『仁祖實錄』 8年3月庚子(20日)條: 『承政院日記』 仁祖8年3月初3日癸未條: 宣若海 「水使公藩陽日記」, 崇禎3年庚午2月條], 3월 23일에 藩陽에 도착하였다(『滿文原檔』 6 「調字檔」, 442쪽(『滿文老檔』 IV太宗1, 342쪽)].

93) 이상, 田川孝三, 1932, 앞의 책, 150-1쪽. 이때 정월에 서울을 떠난 春信使 朴蘭英 일행이 후금의 대조선사절 Yahū mafa, 祝參將 일행과 함께 鎮江까지 와 있었는데 Yahū mafa 등은 陳繼盛들의 습격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서 3월 21일에 藩陽에 이르렀고, 대신에 Inggüldai 등이 100餘騎를 거느리며 義州에 와서 사정을 조사하였다(宣若海 「水使公藩陽日記」, 崇禎3年庚午2月條: 趙慶男 『續雜錄』 3, 同年3月初3日, 夏4月初1日條: 『滿文原檔』 6 「調字檔」, 441쪽(『滿文老檔』 IV太宗1, 341쪽)]. Yahū mafa, 祝參將 일행이 가져온 Hong taiji의 국서 2도는 『各項稿簿』에 “以上二書, 發去至鎮江, 未去復帶回”라고 적혀있듯이(『各項稿

時英에게 미리 “我國人投漢者”를 시켜 “鷄鳴 때, 바로 들어가 공격해야 한다”라고 알린데도 불구하고 李時英이 Dungnami 일행을 도망시켰기⁹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듯이 조선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椴島세력과의 연계를 거부하고 오히려 후금과의 외교관계를 우선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정부는 Dungnami 일행이 朔州방면으로 도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위문하기 위하여 비변사 郎廳이었던 선전관 宣若海를 파견하기로 하였다.⁹⁵⁾ 瀋陽에 도착한 宣若海들에게 Inggūldai는 4월 22일에 “명나라 馬尙船 四隻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島中에 식량이 있을지 물었더니 붙잡힌 漢人들이 말하기를, 椴島·獐子島에서는 조선에 의지하여 그와 무역해서 살고 있다. 기타 遠島는 식량이 떨어진지 오래 되었다고 한다”라면서⁹⁶⁾ 조선 측의 椴島세력에 대한 원조에 대하여 비난하였다. Inggūldai는 4월 26일에 “貴國과 約誓하였을 때, 거듭 島中에 식량을 원조하지 않도록 말하였다. 그러나 지금 漢人의 말을 자세히 들으니, 貴國官員이, 쌀을 갖고 島에 들어가고, 무역해서 돌아온다고 한다. 이것은 어떤 도리인가”라고 하였고, 함께 온 Dungnami도 “내가 왔을 때 安州에서 쌀을 실어서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였다.⁹⁷⁾ Dungnami가 실제로 그것을 봤는지 알 수 없으나, 3-1, 3-3에서 봤듯이 그 당시의 椴島와 조선은 “馬市”같은 경제적 유대가 있긴 있었지만, 조선정부는 그런 관계를 경계해서 劉興治 정토를 도모할 정도였다. 그래서 조선정

籜』天聰4年3月初8日) 조선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 朴蘭英 일행은 4월 초5일에 서울에 돌아왔다(『承政院日記』仁祖8年4月初5日甲寅條：趙慶男『續雜錄』3, 同日條).

94) 『仁祖實錄』8年4月甲寅[初5日]條.

95) 宣若海 일행이 가져간 인조 국서는 『朝鮮國來書簿』天聰4年分4月初8日입. 일행은 3월 27일에 서울을 떠났고 4월 14일에 昌城에서 압록강을 건넜고 東州堡를 경유해서 4월 21일에 瀋陽에 도착하였고 5월 16일까지 체재하였다. 후금 측의 기록에서 일행은 宣若海, 金希參을 포함하여 16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滿文原檔』7「呂字檔」, 190쪽(『滿文老檔』IV太宗1, 366쪽)). 그 동안의 사정을 적은 사료가 宣若海「水使公瀋陽日記」이다. 이 자료는 『寶城宣氏五世忠義錄』[奎11493]에 수록되며 金毓勳編, 1934, 『遼海叢書』遼海書社의 제8집에 수록된 宣若海「瀋陽日記」는 이를 번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96) 宣若海「水使公瀋陽日記」崇禎3年庚午4月22日條.

97) 宣若海「水使公瀋陽日記」崇禎3年庚午4月26日條.

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식량원조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5월 초10일에는 Hong taiji의 지시를 받은 Lungsi가 와서 “島中에 쌀을 싣고 가져가서 팔았다고 한다. 왜 약조를 어겨서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하였고⁹⁸⁾ 13일에는 Hong taiji가 Dahai를 통하여 이번 국서에서는 “島中에 약조를 어겨서 官員이 쌀을 갖고 들어간 일”에 대해서 물을 생각을 미리 전달해왔다. 宣若海가 즉시 이를 부정했듯이⁹⁹⁾ 조선 측으로는 椴島세력에 식량을 스스로 보낸 사실이 없었는데 후금 측이 이를 억지로 문제로 삼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결국 그때 宣若海와 같이 서울에 온 후금사절 Ajuhū, Dungenami일행이 조선 측에 전달한 국서에 “지금 누차 島民을 붙잡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西邊에서 드디어 식량을 보내오지 않았다. 완전히 조선의 물자와 식량에 의지한다. (중략) 이제부터, 貴國의 여러 매매에 대해서는 나는 모두는 지적하지 않는다. 단 糧米만은 결코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던 것이다.¹⁰⁰⁾

宣若海는 baksi의 칭호를 가지는 사람에게서 “興治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중략) 興治는 愛塔의 몇 번째 아우인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陳繼盛과 劉興治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다는 것¹⁰¹⁾을 생각할 때 후금 측은 아직 劉興治나 椴島세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劉興治의 變 이후 후금 측은 조선에 대하여 椴島세력에 식량을 원조하지 않도록 계속 요구하였다.

(2) Ingguldai의 靑布 受取와 朝鮮政府의 Ajuhū 一行을 통한 抗議

5월 16일, 宣若海 일행은 Hong taiji의 국서를 가진 Ajuhū, Dungenami 일

98) 宣若海 「水使公藩陽日記」 崇禎3年庚午5月初10日條.

99) 이상, 宣若海 「水使公藩陽日記」 崇禎3年庚午5月13日條.

100) 『各項稿簿』 天聰4年5月16日. 여기에 “與原來官宣若海, 同差金官東南明齋去. 內帶前視參將未發去一書, 黑貂十張, 紫貂百張”라고 있었듯이 그 때 예전에 전달되지 않았던 『各項稿簿』 天聰4年4月日의 국서와 예물도 조선 측으로 전달되었다.

101) 宣若海 「水使公藩陽日記」 崇禎3年庚午4月28日條.

행, 그리고 3월에 安州에서 거래를 이루지 못하였던 Dungnami 등을 대신 해 靑布를 받으려고 파견된 Inggüldai 등과 함께 瀋陽을 떠났다.¹⁰²⁾ 그들은 23일 義州에 도착하였는데¹⁰³⁾ Inggüldai는 조선 측이 원래 요구하였던 靑布 16,520 桶[同과 같음]에 모자란 10,910 桶밖에 준비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아 安州로 가게 되었다.¹⁰⁴⁾ Inggüldai는 義州까지 거느린 병 500여 명 중 233명을 데리고 安州에 들어와서¹⁰⁵⁾ 12,000 桶의 靑布를 갖고 6월 초6일에 義州에 돌아왔다. 그는 Hong taiji에게 보낸 서간에서 “나머지 5,000 桶은 소와 교환하고 싶지만 아직 오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¹⁰⁶⁾ 여기에서 원래 요구하였던 靑布 16,000여 桶 보다 많은 17,000여 桶에 상당하는 물건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nggüldai는 義州에서 돌아갈 때 漢撥 3명을 참살하고 1명을 잡고 데려가는 등¹⁰⁷⁾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선을 떠났다.

한편 서울로 올라온 Ajuhū 일행은 6월 초7일에 崇政殿에서 인조의 인견을 받게 되었다. 4-1에서 말했듯이 일행이 가져온 Hong taiji의 국서는 주로 조선 측이 椴島세력에 식량을 원조하지 않기를 요청한 것이었는데 조선 정부는 椴島세력이 “완전히 조선에 의지한다는 말은 말한 사람이 속이려고 해서 한 말이다. (중략) 그 변경의 백성들이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는 것은 혹은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 바로 단속해야 한다”라고 적힌 인조의 국서

102) 『滿文原檔』 7 「呂字檔」, 214쪽(『滿文老檔』 IV 太宗1, 386쪽). 이때 Ajuhū 일행의 從胡는 18명, Inggüldai 일행이 거느린 병은 “兼護送運靑布”의 500여 명이었다(宣若海, 「水使公瀋陽日記」 崇禎3年庚午5月16日條).

103) Inggüldai는 자신이 거느린 병 500여명 뿐만 아니라 호위로 온 Sirna가 거느린 병 3,000여 명의 식량을 義州府尹 鄭之罕에게 요구하였다. 후금군은 “精兵未滿千數. 老弱幾至數千” 이었고(이상 『承政院日記』 仁祖8年5月23日壬寅條; 趙慶男 『續雜錄』 3, 同年5月初8日條), Sirna는 鄭之罕이 닷새에 30石밖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十數匹을 죽여 먹어버렸다고 비난하면서 하루에 쌀 50石을 요구한 후 돌아갔다(『仁祖實錄』 8年6月辛亥(初3日)條).

104) 그 때문에 平安監司 金時讓은 安州에 있는 靑布 6,696 桶 6疋중 5,396 桶을 5월 중에 義州로 보내도록 요청하고 있다(『承政院日記』 仁祖8年5月23日壬寅條; 趙慶男 『續雜錄』 3, 同年5月初8日條).

105) 『承政院日記』 仁祖8年5月28日丁未條; 趙慶男 『續雜錄』 3, 同年5月初8日條.

106) 『滿文原檔』 7 「呂字檔」, 286~291쪽(『滿文老檔』 IV 太宗1, 417~418쪽).

107) 義州府尹 鄭之罕은 漢撥의 거소를 감추지 못해서 拿鞠되게 되었고 그 대신에 李漫이 임용되었다(이상 『仁祖實錄』 8年6月壬申(24日)條; 『承政院日記』 同日條).

를 Ajuhū 일행을 통하여 보내게 되었다.¹⁰⁸⁾ 이번 Inggūldai, Ajuhū 등의 조 선왕복으로 平安道, 黃海道에 수많은 민폐를 끼치게 되었다. 이 민폐는 劉興治세력의 약탈과 합쳐서 “漢胡之弊”라고 불릴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¹⁰⁹⁾

(3) 劉興治問題의 一時的 鎮靜化

3-1에서 확인했듯이 조선정부는 劉興治세력을 원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식량을 보내지 말라는 후금 측의 제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6월 26일에 서울을 떠난 秋信使 吳信男 일행이 가져간 인조의 국서에서도 肅川에서 Ajuhū 일행에게 귀순한 조선인 洪大雄이 조선이 劉興治세력과 협력해서 후금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의 인도를 요청할 뿐이었다.¹¹⁰⁾ 후금 측도 6월에 Amin을 처벌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 “壬戌·癸亥·甲子·乙丑大統曆日”의 입수, 洪大雄의 인도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것, “水角弓面”의 입수 등 4개의 서간을 보낼 뿐이었고 劉興治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¹¹¹⁾ 吳信男 일행은 8월 17일에 서울에 돌아왔다.¹¹²⁾

후금 측은 10월 초3일에도 Ajuhū, Dungenami 일행을 보내서 조선 측의 회답을 요청하였으며 새로 “漆”을 요청하기도 하였다.¹¹³⁾ Ajuhū 일행은 80여 명으로 25일에 서울에 도착하였고 28일에 崇政殿에서 인조의 인견을 받게 되었다.¹¹⁴⁾ 조선정부는 그들을 통하여 “潛商人 등이 씩씩하고 정통한 근신을 과견하여 그들을 어사로 해서 일일이 적발하고 이미 변경에서 梟示하였다”라는 서간을 후금 측으로 전달해서¹¹⁵⁾ 밀무역에 대하여 후금 측 요청에

108) 『朝鮮國來書簿』 天聰4年分6月分28日；『仁祖實錄』 8年6月乙卯[初7日]條。

109) 『仁祖實錄』 8年7月乙酉[初8日]條。

110) 『仁祖實錄』 8年6月甲戌[26日]條；『朝鮮國來書簿』 天聰4年分7月分24日。

111) 『各項稿簿』 天聰4年8月分初6日。

112) 『仁祖實錄』 8年8月甲子[17日]條。

113) 『各項稿簿』 天聰4年10月分初3日。

114) 『仁祖實錄』 8年10月戊午[13日], 癸酉[28日]條；『承政院日記』 仁祖8年10月16日辛酉, 26日辛未, 27日壬申條。從胡 인수는 各條에서 82, 84, 80명이라고 적어 있다。

115) 조선정부는 이 부분에 이어서 “而聞商胡等猶踵前習, 時或來到, 越邊要換物貨。邊臣雖一遵朝

따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 漆液2斗, “大統曆日” 중 癸亥·甲子년의 2册, 舊儲弓角 10桶 등을 후금 측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들이 돌아갈 때 鐵山에서 龍川, 義州에 漢兵 150餘騎가 침입하였기 때문에 昌城방면으로 돌아가서 12월 초2일 쯤에 瀋陽에 도착하였다.¹¹⁶⁾

이런 상황을 볼 때 劉興治세력은 조선과 후금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 있었고 오히려 劉興治세력에 대항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선과 후금이 협력할 경우도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12월 18일에 Dungnami가 從胡 107명, 馬驢 160필을 거느리며 義州에 왔고¹¹⁷⁾ 인조 9년 정월에는 春信使 朴蘭英 일행이 瀋陽을 방문하였고, 3월 초에 후금사절 Ajūū, Dungnami 일행과 함께 서울에 돌아왔는데 그 동안 劉興治에 대하여 조선과 후금 사이에서 큰 외교문제가 되지 않았다. 인조9년 초의 양국관계는 朴蘭英 일행이 가져간 인조의 국서와 춘계예물을 후금 측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회답사 魏廷喆 일행을 추가로 파견해서 춘계예물을 전달하거나, 2월의 義州開市가 3월 말로 밀리며 후금 측의 소·말 요구에 조선 측이 거의 응하지 못하거나 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생긴 시기였다.¹¹⁸⁾ 이미 말했듯이 이 시기에 劉興治에 관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張燾·沈世魁의 變 때까지 양국 간의 劉興治에 관한 문제는 일단 진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魏廷喆 一行이 입수한 張燾·沈世魁의 變 情報

3-5에서 살펴본 張燾·沈世魁의 變에 대해서는 그 때 瀋陽으로 파견되었

旨, 嚴辭拒絕. 而疆域有限, 我國勢難——痛禁. 此則惟在貴國嚴加鈐束, 使不得往來也”라고 적어서 후금 측에 단속을 요청하기도 한다(이상 『朝鮮國來書簿』 天聰4年分12月初2日到). 밀무역의 단속에 대해서는 8월에 咸鏡道按察御史 沈之源이 “摘發潛商, 則土兵與京商, 入往胡中, 賣人賣馬者九人, 獨免定配, 不但科罪有異, 且定配於本道, 固其願也. 請皆梟示”라고 정부에 보고한 것(『仁祖實錄』 8年8月戊辰(21日)條)을 보면 주로 咸鏡道방면의 밀무역 단속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116) 이상 『朝鮮國來書簿』 天聰4年分12月初2日到 『承政院日記』 仁祖8年11月16日辛卯, 18日癸巳, 22日丁酉條.

117) 『承政院日記』 仁祖8年12月18日壬戌, 23日丁卯條 趙慶男 『續雜錄』 3, 同年12月18日條.

118) 이상, 鈴木開, 2014, 『瀋陽往還日記』에 나타난 仁祖9年(1631) 朝鮮·後金關係, 『한국문화』 68.

던 魏廷詰 일행도 보고하고 있었다. 즉 魏廷詰 일행은 3월 22일, 奮洞에서 휴식할 때 椴島에서 Inggüldai 밑으로 도망 온 여진인 15명 중 1명을 목격하였다.¹¹⁹⁾ 瀋陽으로 도착한 다음 날인 4월 초5일에는 일행 숙소의 문을 지키는 여진인 祿世에게 Inggüldai의 從胡의 말로서 도망 온 여진인의 남자 200여 명, 여진인의 여자 50여 명, 漢人の 여자 20여 명이 그 날 중에 瀋陽에 도착할 예정이며, 安州에 상륙한 여진인 300여 명은 조선 측에서 군량 6石을 빌린 후 瀋陽으로 송환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아냈다.¹²⁰⁾ 椴島에서 도망 온 사람들의 숫자는 2-7에서 본 후금 측의 사료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도망 온 여자 중 漢人の 여자 20여명이 있었다는 것은 후금 측의 사료에 보이지 않은 정보이다. 또 劉興治의 사망에 대해서는 4월 20일에, Kürcan, Lungsi, Dahai, 阿伐阿, Mucengge 등이 숙소로 와서 내일 Hong taiji와 接見禮를 하게 된 것을 고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리게 되었다.

臣(魏廷詰-스즈키)이 또 말하기를 ‘島中の 變, 무슨 까닭에 생겼는가. 變을 경험한 여진인이, 이미 여기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그 사정을 듣고 싶다.’
 ①그들이 대답하기를, ‘南朝에서는 劉興治와 眞獐이 우리나라에 투항할 생각이 있다고 들어서 南朝는 興治에게 檄書를 보내서 말하기를, 「너의 형 興祚는 죽어서 절의에 따라 쫓아서 忠臣이 되었다. 너도 또 보답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島中에는 투항해 온 여진인이 많으니 후환이 우려된다. 즉 (그 여진인들을-스즈키) 생포해서 보내오면 너에게 벼슬을 주고 欽差로 해서 계속 島中을 통치시킨다.」 興治는 그 말을 믿어, 諸將과 더불어 眞獐의 조처를 밀의해서 계책을 지어 약속하였다.’
 ②그리고 그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아내는 원래 瀋陽에 있었는데 작년부터 興治에게 귀순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통신하였고, 그 후에(興治 쪽에-스즈키) 가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이다. 그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는 金國의 恩을 비록 죽어도 잊기 어렵다. 하지만 너는 왜 여기에 참을 수 없는 계책을 실행했는가.」 거듭거듭 서로 따졌을 때, ③興治가 친근히 시키는 兒獐이 몰래 그 계책을

119) 魏廷詰 『瀋陽往還日記』 辛未崇禎4年3月22日條. 인용할 때 『晚悔堂實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고2511-전57-1) 卷2 『瀋陽日記』와 對校하였다. 이하 같음.

120) 魏廷詰 『瀋陽往還日記』 辛未崇禎4年4月初5日條.

들어 眞獐 등에게 누설하였고, 또 다른 將官이 시키는 兒獐도 그런 움직임을 누설하였다. 두 말이 서로 부합되니 그러므로 眞獐 등이 당황해서 발분하고, 감히 먼저 漢人 등의 주된 將官 이십여 명 및 그 아래의 군병을 거의 다 죽였다. 興治 형제도 또 결박돼서 바로 피살될 때 興治가 울면서 간원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과 처음에 맺은 약속에 따라, 함께 瀋陽에 들어가자.」 그러나 諸獐은 혹은 허가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불가한 사람이 있고, 논의가 일치하지 않아 분운으로서 결착하지 않았다. 興治는 또 죽은 소를 쥐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중의가 정하였다. ㉔ 그 후 밤에 타서 몰래 이웃 섬에 요청해서 漢兵이 매우 형세를 뺀고, 그 다음에 전투를 시작하였을 때 眞獐 등은 죽음을 무릅써서 돌입하였고, 오직 劉興治 형제를 참살하기만 하였다. 즉 추적을 받아 도망하였는데, 그럭저럭 배를 타서 생환한 사백여명이 貴國지방에 상륙하여 물가에 올려 휴식하였을 때, 또 貴國官員二員이, 군병을 거느리고 에워싸서 발포하였기 때문에 마치 전투같은 상황이 되었다. 眞獐 등이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金國에 투항하려 한다. 그런데 金國은 貴國과 화호를 통한다. 왜 여기에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가.」 그 관원 등은 그 말을 들어 그만두고 싸우지 않았다.¹²¹⁾

즉 처음에 ㉔ 劉興治가 명 측의 권유에 따라 비밀리에 논의해서 椴島의 여진인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㉕ 여진인 측이 이를 알게 돼서 먼저 봉기하였지만 일단 소를 죽여서 劉興治와 맹세하는 것으로 진정시켰다. 그러나 ㉔ 劉興治가 다시 배신해서 漢兵을 불렀기 때문에 여진인 등은 劉興治 등을 죽이고 나서 도망하였다. 이런 경과는 2-7에서 본 후금 측 사료와 동일한 내용이다. 그리고 ㉕ 劉興治 아내가 후금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 말하면서 劉興治의 명 측으로 귀순하려는 생각을 비난한 것, ㉖ 劉興治의 계획은 어린 여진인들을 통하여 여진인 측에게 누설되고 말았다는 것 등은 후금 측 사료에 나오지 않은 독자적인 것이다. 魏廷詰 一行이 4월 초6일에 Lungsi, 阿伐阿 등에서 전투가 사흘 동안 이어졌다고 들은 것¹²²⁾과 합쳐서 바로 張燾·沈世魁의 變의 진상을 가리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21) 魏廷詰 『瀋陽往還日記』 辛未崇禎4年4月20日條.

122) 魏廷詰 『瀋陽往還日記』 辛未崇禎4年4月初6日條.

(5) 만들어낸 劉興治의 叛明 事實

그런데 Hong taji는 4월 23일에 Lungsi 등을 통하여 魏廷詰 일행에게

작년 劉興治가 사람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말하기를, ‘南朝는 식량을 보내 오지 않으니 안심하기 어려운 형세이다. 식량이 다하면 바로 투항해야 한다.’ 손꼽아 헤아리며 기다렸는데 갑작스럽게 島中에서 變이 일어났고, 투항한 여진인 이백여 명이, 여기에 와서 말하기를 ‘조선이 식량을 주지 않았으면, 劉興治는 이미 투항했을 텐데 조선이 식량을 원조하였기 때문에 미루게 되었다.’¹²³⁾

라고 했듯이 도망 온 여진인의 말에 따라 劉興治는 원래 후금 측으로 귀순하려고 하였지만 조선의 식량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였다고 해서 조선정부를 비난하였다.¹²⁴⁾ 후금 측의 목적은 椴島를 정토하기 위해 조선 측에 배와 뱃사람을 빌린 것이며,¹²⁵⁾ 劉興治와 관련지어 조선 측을 비난하려고 劉興治의 귀순이 조선 측의 식량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2-6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후금 측도 2월 24일에 劉興治가 명 측으로 완전히 귀순하려고 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劉興治가 후금 측으로 귀순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3-5에서 검토했듯이 조선 측은 張燾, 沈世魁 등에게서 羅德憲을 통하여 劉興治가 반란하였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 말이 우연히 후금 측이 주장한 劉興治의 귀순의지와 맞았기 때문에 『仁祖實錄』 9年3月乙未條는 劉興治가 후금으로 귀순하려고 해서 張燾, 沈世魁들에게 피살당한 것처럼 적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123) 魏廷詰 『瀋陽往還日記』 辛未崇禎4年4月23日條.

124) 『仁祖實錄』 9年5月庚辰[初7日]條에 “回答使魏廷詰馳啓曰, 金汗言, (중략)且言, 劉興治將投于我, 緣貴國給餉, 得以資活, 不果來投. 貴國之事, 何乃如此. 若復有島中給餉之事, 則我當出據義州, 以絕其路, 其能無害於貴國乎云”라고 있는데 그 때의 교섭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25) 『各項稿簿』 天聰5年5月27日發.

劉興治의 叛明은 바로 만들어낸 사실이었다고 말해야 된다. 이런 것 들을 생각할 때 후금 측의 주장은 너무 무리한 것이며 그 주장을 바탕으로 한 요구에 대하여 조선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¹²⁶⁾은 당연지사였다고 생각된다.

5. 맺음말

劉興治 椴島집권기[1630년 4월-1631년 3월]의 朝鮮, 椴島, 後金간의 관계는 劉興治의 變, 劉興治와 후금과의 동맹, 劉興治의 그 동맹 파기, 張燾·沈世魁의 變 등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劉興治의 變인데 劉興治는 형 劉興祚의 뒤를 따라 椴島에 들어가서 劉興祚가 거느린 병을 맡게 되었으나 椴島의 책임자인 陳繼盛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2-1]. 후금 측은 이미 인조8년 2월에 陳繼盛 등에게 귀순을 권유하였고[4-1], 3월에 劉興治와 그 형제에게 귀순을 권유하고 있었는데, 劉興治는 명과의 협조노선을 유지하면서 후금과도 관계를 맺으려고 해서 陳繼盛을 살해하였다고 생각된다[2-2]. 조선 측의 기본노선은 원래부터 椴島세력과의 관계보다 후금과의 관계를 우선시키는 것이었고[4-1], 劉興治의 變이 일어나자 즉시 그들을 정토하려고 하였다[3-1].

劉興治는 명 측과 화해하였는데 그 이면에서 후금과의 교섭도 계속하였다. 그는 劉興沛를 보내서 7월 11일에 Hong taiji 등과 同盟을 맺게 되었다. 후금 측은 맹세문서에서 劉興治 세력을 “客國”이라고 표현했듯이 그들을 독립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同盟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2-3]. 劉興治는 劉興治의 變 직후부터 조선 측에 대해서도 사자를 몇 번이나 보냈는데 특히 8월에 서울로 온 李梅는 지위도 낮고 가져온 문서도 규례와 맞지 않고 매우 강압적인 태도였기 때문에 조선 측은 이를 신용하지

126) Hong taiji는 椴島에서 도망온 여진인의 말을 들어서 Lenggeri, Kakkuri 등을 보내서 椴島 등을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조선 측이 식량원조만 해서 배를 빌리지 못했다. Lenggeri, Kakkuri들은 배를 약탈해서 椴島 등을 공격하였으나 黃龍, 張燾, 沈世魁 등이 거느린 明軍을 이기지 못하였다(이상, 田川孝三, 1932, 앞의 책, 154쪽. 李光濤, 1948a, 앞의 논문).

않았고 신중히 대처하였다[3-2]. 劉興治와 조선과의 관계가 이런 상태였음에도 후금 측은 조선 측이 劉興治 등에게 식량을 원조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4-2], 그 이면에서 劉興治 아내를 椴島 측에 송환하였고[2-4], 劉興治 측에게서 開市가 행하지 못한 대신에 犀角, 茶와 같은 물건을 얻은 등[2-5], 12월 까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劉興治세력의 형세는 조선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불리해졌다. 劉興治는 후금 측으로 보낸 서간에서 조선상인을 통하여 후금 측과 무역하면 “三國”모두에게 편리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2-5], 실제로 조선 측이 물자를 판 것은 딱 한번 확인될 뿐이며[3-3], 劉興治 측은 식량, 말을 얻기 위해서 예부자문을 위조할 정도로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었다[3-4]. 조선을 통한 후금과의 무역이 잘 되지 않았던 劉興治는 2월 24일에 瀋陽에 도착한 서간에서 후금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완전히 명 측으로 귀순할 생각을 드러냈다[2-6]. 한편으로 조선과 후금의 사이는 후금 측의 요청에 따라 “大統曆日”을 보내는 등 관계가 긴밀하게 되었으며 劉興治에 관한 외교문제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4-3].

결국 劉興治 등은 인조9년 3월 18일, 명 측에 귀순을 원하지 않은 여진인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에 피살당하였고[2-7], 그 때 瀋陽을 방문하고 있던 조선사절 魏廷詰 일행도 같은 정보를 조선정부에 보고하였다[4-4]. 그러나 조선정부에서는 劉興治의 接伴使 羅德憲의 보고에 따라 후금 측으로 귀순하려고 한 劉興治 등을 張燾, 沈世魁 등이 살해하였다고 이해하였고 『仁祖實錄』에도 그런 식으로 기재되었다[3-5]. Hong taiji가 魏廷詰를 통하여 조선 측의 식량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劉興治세력이 후금 측으로 귀순하지 못하였다고 조선정부를 비난한 것도 그런 이해가 생긴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4-5]. 張燾, 沈世魁 등이 椴島의 실권을 잡으려고 羅德憲에게 자신들이 배신한 劉興治를 살해하였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감안해 이 사건을 張燾·沈世魁의 變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3-5]. 후금 측이 주장한 劉興治세력에 대한 식량원조는 조선 측에서 배와

뱃사람을 빌리기 위하여 후금 측이 만든 구실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무리한 주장이었다[4-5].

광해군14년(1622) 11월부터 인조15년(1637) 10월까지 靺島세력의 성쇠 중 劉興治세력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역시 조선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조선정부와 劉興治세력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劉興治 측이 보낸 사람이 서울 주변에서 사족이나 백성의 비호를 받으면서 정보를 수집하였고, 조선 측 역관이나 상인이 靺島로 건너서 馬市같은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3-3]. 조선정부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였는데 劉興治가 조선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 후금 측의 靺島정도를 경계해서 최종적으로 명 측으로 귀순을 결정했듯이[2-6] 劉興治와 후금의 관계가 끊기는 하나의 계기도 되었다.

毛文龍이 인조6년 5월에 靺島에 들어온 후금사자 Koko를 명 측으로 인도하거나 그 이후 후금 측이 명을 정토하기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거나 해서[127] 후금과의 관계가 안정되지 않았지만, 劉興治세력은 한 때 동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보아도 명보다 후금과의 관계가 더 깊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으로 劉興治는 휘하에 상당수의 여진인이 있었고 劉興治의 變의 경위를 봐도 명정부의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 게다가 劉興治 등은 후금에서도 망 온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후금 측으로 귀순하는 것은 커다란 각오가 필요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정부에 식량원조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고 드디어 劉興治 등은 명 측으로, 휘하의 여진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후금 측으로 귀순을 원하였기 때문에 분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劉興治를 비롯한 漢人은 劉興祚와 같이 명에서 활약할 여지가 있었지만 휘하의 여진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입장 차이가 분열을 초래한 하나의 이유가 된 것이다. 劉興治세력은 명, 후금, 조선 안에서 상업·군사세력이 되려고 하였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劉興治를 둘러싼 조선-후금관계에서 후금 측은 劉興治와 조선정부의 관계가 깊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배와 뱃사람을 빌리기 위해서 조선

127) 神田信夫, 1966, 앞의 논문, 144~146쪽.

측이 椴島를 원조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정묘호란 때도 毛文龍과 조선의 관계가 후금 측의 침략 이유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이번도 조선과 椴島세력의 관계가 후금 측에 의하여 과장되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당시의 조선 측의 椴島원조에 관한 후금 측 주장은 그 실태와 맞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1. 史料類

『各項稿簿』 『國樞』 『瀋陽往還日記』 『滿文原檔』 『寶城宣氏五世忠義錄』 『邊事小紀』 『續雜錄』 『崇禎實錄』 『崇禎長編』 『承政院日記』 『仁祖實錄』 『朝鮮國來書簿』

2. 단행본 및 연구논문

(국문)

鈴木開, 2014, 「『瀋陽往還日記』에 나타난 仁祖9年(1631) 朝鮮-後金關係」 『한국문화』 68

한명기, 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_____, 2013, 『역사평설 병자호란』 1, 푸른역사

(일문)

岩井茂樹, 1996, 「十六・十七世紀の中國邊境社會」, 小野和子編 『明末清初の社會と文化』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神田信夫, 2005, 『清朝史論考』 山川出版社

岸本美緒, 1995, 「清朝とユーラシア」, 歷史學研究會編 『講座世界史2 近代世界への道』 東京大學出版會

_____, 1998, 「東アジア・東南アジア傳統社會の形成」 『岩波講座世界史13 東アジア・東南アジア傳統社會の形成』 岩波書店

清朝滿州語檔案史料の總合的研究チーム譯註, 2011, 『內國史院檔 天聰五年』 I, 東洋文庫

田川孝三, 1932, 『毛文龍と朝鮮との關係について』 彙文堂書店

田中克己, 1958, 「アイタの傳記」 『東洋大學紀要』 12

細谷良夫, 2007, 「明朝の武將尙可喜」 『東北大學東洋史論集』 11

松浦章, 2013, 『近世中國朝鮮交渉史の研究』 思文閣出版

松村潤, 2008, 『明清史論考』 山川出版社

滿文老檔研究會譯註, 1955-63, 『滿文老檔』 東洋文庫

渡邊修, 1994, 「己巳の役(一六二九-三〇)における清の對漢人統治と漢官」 『松村潤先生古稀記念清代史論叢』 汲古書院

(중문)

陳昱良, 2011, 「明人劉興治與朝鮮關係初探」 『滿學論叢』 1

黃一農, 2002, 「劉興治兄弟與明季東江海上防線的崩潰」 『漢學研究』 20-1

- 姜守鵬, 1987, 「劉興治의 歸明與叛明」 『社會科學輯刊』 1987-3
李光濤, 1986, 『明清檔案論文集』 聯經出版事業公司
孟森, 1986, 『明清史論著集刊』 續編, 中華書局
王志强, 2014, 「《金國汗黃臺吉與海島劉興治等告天盟書》考」 『中國國家博物館館刊』
2014-2
張存武, 1979, 「清入關前與朝鮮的貿易：1627～1636」 『東方學志』 21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1990, 『清代檔案史料叢編』 14, 中華書局
中國第一歷史檔案館, 2001, 「天聰五年八旗值月檔(二)」 『歷史檔案』 2001-2

투고일 : 2014년 11월 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 2015년 6월 10일

■ 日文概要 ■

劉興治と朝鮮との関係について

鈴木 開

明末清初，平安道の鉄山半島南方の海上に位置する椴島を占拠して反後金活動を行った毛文竜の存在はよく知られている。しかし，毛文竜の死後，すなわち1629年以降の椴島勢力の動向は十分に解明されておらず，この勢力が明清交替に際して果たした役割も十分に解明されていない。そこで本稿では，関連史料が比較的豊富な劉興治執権期（1630年4月～1631年3月）の椴島勢力の動向を検討し，毛文竜の死後における同勢力の実態解明の一助とした。

劉興治執権期の椴島勢力の動向は，劉興治の変，劉興治と後金との同盟，劉興治による後金との同盟の破棄，張燾・沈世魁の変の四段階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

劉興治はもともと，後金のホンタイジから椴島を撤収して帰順するよう勧誘されていたが，毛文竜の死後に椴島の責任者であった陳繼盛を1630年3月に殺害し，独立勢力となって後金と同盟する路線を選んだ。これが劉興治の変である。劉興治は7月には後金との同盟を成立させ，その一方で，明朝廷にも恭順の態度を示し，朝鮮朝廷にも使者を送って食糧援助を要請した。しかし，朝鮮朝廷は，後金との関係が深い劉興治を信用せず，食糧援助にもほとんど応じなかった。劉興治は明朝廷からも十分な援助を受けられず，後金が同盟の見返りとして期待した明の物資供給地という役割を十分に果たすこともできなかった。

劉興治は1631年2月，明朝廷からの援助を受けるため，後金に同盟の破棄を通告したが，こうした措置に反発した配下の女真人が蜂起し，3月に劉興治らを殺害して後金に帰順した。劉興治は，女真人の蜂起を鎮圧に来た張燾，沈世魁によって，後金への帰順を画策した首謀者とされ，朝鮮朝廷でもこの見解が採用された。したがって，この事件は張燾・沈世魁の変と呼ぶことが妥当であると思われる。